



코스피(5일)	3120.83 (+8.03P)	코스닥	969.77 (-0.32P)
환율(달러당 원화)	1127.70 (+0.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202% (+0.051%p)

26년만에 폰 접은 LG 로봇·전장부품 승부수

23분기째 적자, 누적 손실 5兆 해외매각 불발...5월 생산 종료 한때 글로벌 3위 ‘썸쓸한 퇴장’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1995년 LG정보통신에서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이다.

▶관련기사 4·5면

LG전자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생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월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두 달 보름 만에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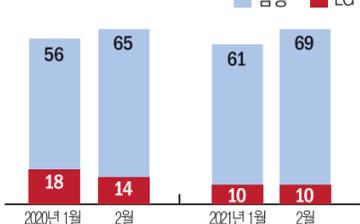
LG전자는 사업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 독일 폭스바겐 등과 접촉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쳐폰 시절 초콜릿폰과 사인폰 등을 히트시키며 세계 휴대폰 시장 3위까지 올랐던 LG전자는 스마트폰 대응에 뒤처지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누적 손실액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휴대폰 사업 경쟁 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 부진, 내부자원 효율화를 통해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및 사업구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C사업 종료로 단기적으로는 전자 매출액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체질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통신사업자 등 거래선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스마트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

삼성·LG 스마트폰 국내 시장 점유율 (단위: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단위: %, 2020년 기준)



* 출처: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울러 사업 종료에 따른 거래선과 협력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MC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도 타 부서 및 계열사 재배치를 통해 유지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업은 종료하지만, 로봇과 전장부품 등에 필요한 핵심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전자 휴대폰 국내 시장점유율이 12~13%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삼성전자 갤럭시의 독주와 더불어, 샤오미 등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 제품의 시장잠식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LG전자가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지속과 더불어 협력사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가 ‘착한 철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록 기자 syr@



내일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한 유권자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 앞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뉴스시

삼성전자 0.1주 못 살 이유 있나요

국내 증시 활황에 고액주 늘어 ‘소수점 거래’ 도입 요구 잇따라 증권사도 ‘규제 샌드박스’ 요청 정부 긍정적 입장, 도입 검토중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수점 거래가 필요하다. 서민들은 1주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에 투자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6면

최근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다. 커피 한 잔 값으로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하면 ‘서학개미’의 발길을 돌리고, 부의 재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

5일 국내 증권사들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 전에 소수점 매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로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코스피 3000 수준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경우 주식 소수점 거래가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3월 초 변재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제도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수점 거래를 시범 도입해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을 비롯해 법령,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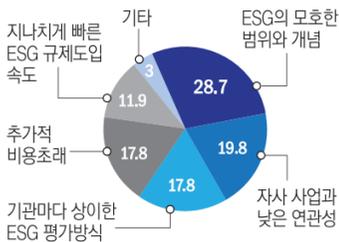
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역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기반으로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소수점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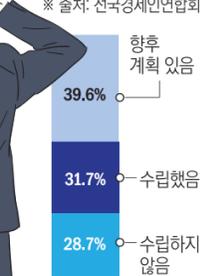
일명 ‘주린이(주식+어린이)’라 불리는 20·30세대 소액투자자에게 고액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기회를 주자는 게 취지다. 이를 통해 ‘빛투(빛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의 뒤따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중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우선주)를 제외한 8개 종목이 1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주식에 소수점 매매를 도입하면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소수점 매매를 활성화하면 재산, 소득 상관없이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염기 기자 eom@

ESG 전략수립 시 애로사항 (단위: %)



ESG 경영성과 연간 목표 수립 여부



사장님 “ESG 경영” 외치지만 직원들은 ‘가우똥’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 10명 중 7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기관마다 상이한 평가방식에 관련 전략을 짜는 데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ESG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도는 66.3%(매우 높음 36.6%·다소 높음 29.7%)였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선박,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건설, 숙박·음식업 등에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10명 중 7명 “ESG 관심 많다” 개념 모호하고 평가방식도 제각각, 전략 수립에 애먹어

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어려운 점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다. 그 밖에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다른 ESG 평가방식(17.8%), 추가 비용 초래(17.8%), 지나치게 빠른 ESG 규제도입 속도(11.9%) 등이 지적됐다.

ESG 경영의 구체적인 연간목표 수립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31.7%가 ‘수

립했다’, 39.6%는 ‘수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은 모든 응답 기업이 이미 수립을 완료했거나 수립 예정이라고 답했다.

ESG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45.5%가 설치(17.8%)했거나 할 예정(27.7%)이라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원의 경력은 전직 기업인(24.1%), 회계전문가(20.7%), 교수(13.8%), 전직관료(6.9%) 순이었다.

ESG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43.2%), ‘국내외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20.8%), ‘ESG 규제부담 때문’(18.0%) 등 순이다.

ESG에 따른 매출액 증감 전망치에 대한 질문에는 △차이 없다’는 응답이 33.7% △‘0~5% 증가’ 25.7% △‘5~10% 증가’ 17.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한 기업은 101곳으로, 응답률은 20.2%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등 대기업 1.2兆 ‘단체급식’ 中企 개방

“확진자 수 증가·변이 추가” 당국, 거리두기 상향 검토

현대차·신세계 등 8개 그룹 선언 25년 지속 내부거래 관행 개선 LG 내년부터... CJ, 65% 개방

삼성 등 주요 재벌그룹이 25년 가까이 계열사에 몰아졌던 단체급식(구내식당) 일감이 중소기업 등 독립기업(계열사가 아닌 기업)에 전격 개방된다.

이에 따라 독립기업들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단체급식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 8개 그룹은 5일 서울 마곡동 소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가 전체 시장(4조3000억 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업체가 소속된 15대 그룹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러한 거래 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며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한 결과 8개 그룹이 이번에 독립기업에 대한 일감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8개 그룹은 내년에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에 공급되는 약 1000만 식의 급식 일감을 독립기업에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 중 LG는 내년부터 단체급식 일감 전면 개방 원칙을 세우고, 소규모 지방 사업장에 대한 급식 제공 업체로 인근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CJ의 경우 그룹 내 단체급식 물량의 65% 이상을 독립기업에 순차 개방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범적으로 2개 식당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외부업체 선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면 대외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8개 그룹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언으로 앞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진 1조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물량을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독립기업 수주 확대에 단체급식 시장 경쟁도 활성화돼 세계적 수준의 급식업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일감 개방 참여기업과 협력해 순차적으로 일감 개방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은 9일 발표할 예정으로, 4차 유행 공포에 여론도 거리두기 강화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조정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9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449명 등 473명이다. 전날까지 5일간 이어졌던 500명대 확진자 발생은 멈췄으나, 진단검사가 감소하는 휴일효과를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이 바이러스도 41건 추가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3차 유행 이후에 경증·무증상 감염 등으로 감염자가 누적돼 지역사회 내에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특히 유흥업소, 사우나, 목욕탕, 음식점과 주점, 교회와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우호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거리두기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방역적인 조치나 예방수칙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무역협회장〉

‘무역 베테랑’ 만난 구자열 “中企 수출 해결사 돼 달라”

무역 현장 자문위 간담회 “해외 마케팅 노하우 발췌”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수출 기업을 돕고 있는 현장 자문위원을 만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해결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무역 베테랑’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에는 구 회장과 28년 전 함께 근무한 동료도 있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 현장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협회의 무역 현장 자문위원은 30여 년간 수출현장을 누빈 베테랑들로, 총 70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패러다임 시프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세계 각



구자열(앞줄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현장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무역협회

곳의 무역 현장에서 쌓은 수출 노하우와 해외 마케팅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력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1990년대 초 LG상사 도쿄지사에서 구자열 회장과 함께 일했던 이석희 자문위원도 참석했다. 이 위원은 1978년 입사한 LG상사를 시작으로 31년간 무역 현장에서 일한 ‘무역인’이다. 도쿄지사서 전자·금속·섬유 수출입을 담당하

던 1992년, 구 회장과 한술밥을 먹었다.

구 회장과 28년 만에 재회한 이 위원은 “사명감으로 수출 기업을 도와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역협회 무역 현장 자문위원은 전국의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수출입 실무, 경영·리스크 관리 등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직접 방문과 화상상담을 포

함해 약 1만5000개 수출기업을 만났다. 특히,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 초기 단계인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제공했다. 자문위원의 도움으로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은 2018년 436개, 2019년 458개, 2020년 462개로 매년 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 회장과 지역별 대표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좀비기업 늘어나는데

상장사 4곳 중 1곳 돈 벌어 이자 못 내...업종별 양극화 뚜렷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거둔 성적표는 기업 규모별·업종별로 뚜렷이 명암이 갈렸다. 작년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24.9% 증가했지만, 상장사 4개 중 1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코스피 및 코스닥 비금융 상장 기업 1017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67조3000억 원)이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장사 매출액 5분위 배율은 2019년 266.6배에서 2020년 304.9배로 확대됐다. 매출액 상·하위 20% 기업 간 평균 영업이익 차이도 2019년 2386억 원에서 2020년 3060억2000만 원으로 28.3% 늘

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수는 2019년 249개에서 2020년 255개로 6개 늘어났다. 이는 상장기업의 25.1%에 해당한다.

양극화는 업종별로도 뚜렷했다. 코로나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의료· 제약업종의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25.7% 급증했다. 전자·전자(64.0%), 음식료(27.4%), 소프트웨어·인터넷·방송서비스(18.6%) 등 비대면화 수혜 업종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유통 및 대면 서비스(△26.4%), 사업서비스(△39.1%) 등 서비스 업종과 기계(△72.8%), 철강·금속(△37.8%), 화학(△27.1%) 등 전통 제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줄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지난해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에 시장엔 자금이 넘쳐난다. 서민은 허리를 조이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다.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에 정책은 견고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폭발하는 보복소비

백화점 봄세일 매출 60% 증가, 소매판매액지수 25년 만에 최고

역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되며 이른바 '보복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종식 기대감과 따뜻한 봄 날씨에 소비자들이 외출에 나서면서 봄 세일을 맞은 백화점에는 생기가 돌고 있다. 주로 명품과 리빙에만 쏟았던 소비가 전 카테고리로 확대되며 지난주말 백화점의 봄세일 매출은 전년보다는 40~60%대 늘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다.

롯데백화점은 정기세일이 시작된 2~4일 전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요일과 비교해 46% 올랐다고 5일 밝혔다. 2019년과 비교해서도 15% 높아진 수치다. 교외형 아울렛 6개점의 매출 증가율도 49%를 기록했다.

신세계의 세일 첫 주말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62.5% 급등했다. 현대백화점도 2~4일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점 매출은 47.4%(기간점 기준) 치솟았다. 2019년과 비교해서도 14.8% 늘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작년과 달리 따뜻한 날씨에 외출이 늘면서 의류 구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8.4% 증가했다. 특히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가 33.5% 증가해 1996년 2월(52.9%)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로 고가품이나 일상생활과 밀접도가 떨어지는 사치품에서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남주현 기자 joo@



GDP 육박하는 가계빚

국민총생산 대비 '98.6%' 세계 최고 수준 "금리상승시 충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로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GDP 대비 27.6%포인트(P) 증가했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0.9%P 소폭 감소했고 전 세계 평균은 3.7%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9년 기준 단기(1년) 비중이 22.8%로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

탈리아(6.5%), 영국(11.9%)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로 스페인(32.0%),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이탈리아(21.9%), 일본(18.4%), 미국(17.3%)보다 높아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3.9%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세금 규모를 합산할 경우 61.2%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동반 발생한 사례를 볼 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이 와중에 대출 풀자는 與

보궐선거 표심 급하자 "LTV·DTI 완화" 금융규제와 엮박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투자(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막겠다고 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는 상반된 조치다.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자 표심을 얻기 위한 '부동산 정치'가 자칫 가계 빚을 잡겠다고 '총량 제한' 원칙을 고수해 온 금융 당국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규제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총량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다. 문제는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임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이고(우대), 50년 모기지에 '국가 보증제'까지 내놓은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와 DTI를 높여 혜택을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이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가 올초 내놓은 규제완화책과 대동소이하다.

금융위 대책 수준을 뛰어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50년 모기지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30년 만기인 모기지 상품에 40년 만기를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직원 고용 유지 **소비자 AS 지속** **협력사 합리적 보상**

모바일 생태계 피해 최소화

LG전자가 5일 모바일사업을 결국 종료하기로 하면서 LG 스마트폰 생태계와 얽힌 직원, 소비자, 협력사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LG전자는 고용 유지, 사후 서비스(AS) 지속, 협력사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LG전자는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올해 1월 스마트폰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밝히면서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LG전자는 약 3400명의 MC사업본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LG전자 타 사업본부와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인원들의 의향을 먼저 고려해 개인의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효과적인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별 인

3400명 MC본부 직원 재배치
지속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약 제품 공급 등 서비스 약속
협력사 도미노 피해 없게 협의

원들의 의향, 각 사업부·계열사 수요 조사를 통해 재배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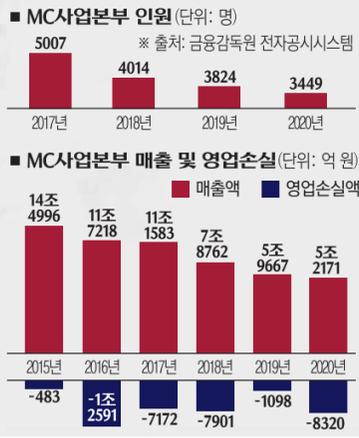
재배치 과정에서의 일부 인력 이탈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창원 발령 등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길 가능성도 나오면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등 근무지 배치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희망 근무지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전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경남 창원, 자동차부품(VS) 사업본부,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 등에서 인력 재배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휴대폰 구매 고객과 기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서비스 지속도 약속했다. LG전자는 통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를 확정된 5일 서울 한 LG전자 매장에 스마트폰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LG전자 MC사업본부 현황



사업자 등 거래선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폰을 생산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 서비스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당장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

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후 서비스 인프라 축소 등이 우려된다. 2017년 5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팬택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서비스센터가 점차 줄어 현재는 전국 9곳에 불과하다. 가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철수로 서비스센터를 줄일 가능성은 작지만, 관련 서비스 인력 축소와 업무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걱정스러운 점은 소프트웨어다. LG전자의 제조 기술력은 이

미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에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은 주기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LG전자는 기존 MC사업본부 인력 일부를 남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른 협력사 문제는 산업계와 정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1차 협력사에 이어 2차, 3차로 이어지는 도미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거래선과 협력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12~13%)이 크지 않은 만큼 적정할 만큼의 협력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G전자의 철수로 매출액 감소 등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전체 전자 부품 시장으로 봤을 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사는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국 기업 등 복수의 거래선을 두고 있다"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언제든지 노란우산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지급

경영·심리 무료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아이폰·갤럭시 '혁신폰' 나올때 피쳐폰 집착하다 한순간 추락

왜 무너졌나

‘초콜릿폰’·‘프라다폰’ 등 인기 승부수 ‘벨벳’·‘윙’ 흥행 참패 후발주자 기술선도 노력 한계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시로 탄생한 일명 ‘회장님폰’ 유틸머스G 이후 G시리즈, V시리즈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따라잡기에 나섰다. G3는 LG 스마트폰 최초로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하며 휴대폰 사업 부활에 희망을 주기도 했다. 다만 한 번 놓친 시장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이 넘어가자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가격을 확 낮춘 실속형 시장에 집중된 화웨이, 샤오미, 비보 등 중국 후발업체들의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과 삼성, 중저가는 중국 업체로 양분되면서 LG전자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적자 폭도 꾸준히 늘었다. 2015년 483억 원 적자에서 2016년 1조 원대로 급증했고, 2017년과 2018년 7000억 원대, 2019년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폭도 8000억 원대를 넘는다. 어려움이 계속되던 2020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야심 차게 던진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과거 ‘초콜릿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포부로 출시한 ‘LG 벨벳’과 화면이 돌아가는 스윙블 스마트폰 ‘LG 윙’이 모두 흥행에 참패했다. 결국 올해 초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1에서 ‘롤러블’ 스마트폰 예고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개발 단계에서 사업이 중지되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개발하라”는 노우리 기자 we1228@

진격의 중국폰, LG폰 빈자리 '중저가 공습' 가속

스마트폰 시장변동 예고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생긴 빈자리를 두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선 한동안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고착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샤오미 등 중국 중저가폰의 시장잠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1%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 보면 13%이고, 올해 들어선 이보다 소폭 하락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하락세가 지속된 건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점유율인 만큼 LG 스마트폰 철수 빈틈을 차지하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최근 중저가폰 보상판매 프로그램 대상에 LG 제품 'V50'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자사 제품과 애플을 중심으로 시행돼 온 보상판매 프로그램에서 LG 제품이 추가된 건 이례적이다.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 Z폴드 시리즈 등을 구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반납하면, 중고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샤오미는 최근 40만 원대 이하 중저가 스마트폰 '레드미 노트10' 시리즈를 국내

샤오미, AS 강화·제품군 다양화 '레드미 노트10' 필두 틈새공략

삼성, LG폰 이례적 보상 판매 안드로이드 사용자 흡수 가능성

독점·고객 선택권 제한 우려도

에 공개하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달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선 "올해를 한국 시장 확대를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제품군 다양화, 사후관리(AS)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일단 업계에선 LG전자 국내 고객층의 선택이 대부분 삼성전자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운영체제(OS)인 iOS를 쓰는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 등 중국 업체가 추가로 나서긴 했지만 '외산폰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획기적인 점유율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 폰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자급제폰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마냥 중국 중저가폰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60%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1위다. 업계

2위인 애플 점유율은 20% 안팎 수준이다. 빈자리를 애플과 일부 양분한다 해도, LG 전자 철수 이후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의 독점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 경쟁사가 애플만 남게 되면서, 자체 지원금이나 프로모션을 펼칠 유인이 없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플래그십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국내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높으므로 사업을 철수하면 중저가 스마트폰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설이 제기된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중국 업체들의 더 큰 수혜가 점쳐진다. LG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서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테코 등 중저가 시장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점유율 중상위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국내 발매 최신 스마트폰 사양

	SAMSUNG 갤럭시S21 울트라	LG 원	레드미 노트 10 프로
디스플레이	6.8형(173.0mm) QHD+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172.7mm 20.5:9 FHD+ 노치리스 올레드 풀비전 (메인 스크린) 99.6mm 1.15:1 올레드 (세컨드 스크린)	6.67형 AMOLED FHD+
카메라	전면 4000만(F2.2), 후면 쿼드 카메라(1억 800만 광각(F1.8), 1200만 듀얼픽셀 초광각(F2.2), 1000만 듀얼픽셀 망원(3배줌, F2.4), 1000만 듀얼픽셀 망원(10배줌, F4.9), 레이저AF)	전면 광각 3200만 화소 팝업 카메라후면 광각 6400만 화소 OS, 초광각 1300만, 초광각 1200만 화소 (스위블 모드)	전면 1600만, 후면 1억 800만 (F1.9), 800만(F2.2 초광각) 500만(F2.4 접사) 200만 (F2.4 심도)
크기	75.6x165.1x8.9mm	169.5 x74.5x10.9	164x76.5x8.1mm
무게	227g	260g	193g
메모리	16GB RAM+512GB 내장 메모리	8GB 램 / 128GB 내장 메모리	6GB 램 / 128GB 내장 메모리
배터리	5000mAh	4000mAh	5020mAh
출고가	159만9400원	109만8900원	31만9000원

'마이너스 사업' 고강도 구조조정 배터리·AI 등 미래 먹거리 집중

구광모의 '선택과 집중'

취임 후 실용 기반 변화 추구 비주력·적자사업 과감히 정리 M&A 등 신사업 역량 강화 박차

LG전자가 5일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발표하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실용주의 전략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대 회장들이 독심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갔다면, 40대 젊은 오너인 구광모 회장은 실용주의에 따라 '돈 안 되는' 사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비주력·비핵심·적자 사업들을 과감히 매각하고, 미래 유망 사업에 집중해 왔다.

업계는 2018년 6월 취임 후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해온 구광모 회장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통해 주력 사업 고도화와 미래 사업 육성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앞서 구 회장은 취임 후 LG화학의 액정표시장치(LCD) 평판판 사업을 중국 업체에 매각했고, LG전자의 연료전지 회사 LG퓨얼셀시스템즈를 청산했다. 또 LG유플러스의 전자결제 사업도 스타트업에 매각했다.

반대로 자동차 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에는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



구광모 LG 회장 취임 후 주요 사업 재편 추이

2018년 6월	구광모 회장 취임
8월	LG전자,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제조기업 ZKW 인수
2020년 11월	LG 로봇사업센터, LG전자 BS사업부 편입
2021년 1월	LG그룹 16개 계열사 참여 AI 전담조직 'LG AI 연구원' 출범
3월	LG전자-록스포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합작법인 '알루토' 출범
4월	스마트폰 사업 관련 LG전자 MC사업본부 철수 결정
7월	LG전자-마그나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엘지마그나 이퍼워트레인' 공식 출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해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무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레인 분야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고, 불과 일주일 후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TV 광고·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를 인수했다. 동시에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배터리, IT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에도 거침없는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다.

LG는 앞으로 전자, 화학, 통신 등 기존 주력 사업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자동차 전장, AI 등 신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은 개별 고객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만족시키는 '올포원(All For One)'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용 모니터, 상업용 디스플레이, 각종 시설의 맞춤형 로봇 등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사업의 경우 사내벤처 등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역량 확보를 위한 M&A, 전략적 협력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종료 후에도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모바일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은 이어간다.

LG전자 관계자는 "6G(6세대 이동통신),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핵심 모바일 기술은 차세대 TV, 가전,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한 역량"이라며 "특히 2025년경 표준화 이후 2029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원천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은 물론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인터넷(AIoE·Ambient IoE) 시대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 3700여건 5G 특허 기반 전장사업 공격적 행보 나설 듯

자동차 전장화 핵심은 통신기술 합작법인 설립·6G 기술 확보 등 미래 전기차 시대 영향력 확대

LG전자가 26년 만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겠다고 5일 공식화한 가운데, 업계는 LG전자의 모바일 특허에 주목하고 있다. 노키아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도 막강한 특허로 지금까지도 모바일 시장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노키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에 이르는 5G(5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 건의 5G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LG전자가 노키아처럼 특허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모바일·통신 특허를 활용해 전장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5G로 본격화한 자동차의 전장화는 통신기술 등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거는 등 실제 최근 자동차에는 다양한 통신기술이 대거 적용되고 있다. UWB(초광대역)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나 도어 등을 여닫을 수 있는 디지털 키도 구현되기 시작했다. 사물과 자동차의 연결을 넘어 도로를 달리면서 자동차와 자동차의 연결까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려면 결국 통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LG전자는 2025년경 표준화 이후 2029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원천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율주행은 물론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인터넷(AIoE·Ambient IoE)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통신 기술 확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사업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세계 3위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LG전자 전장사업 관련 현황

VS사업본부

- 매출: 5조8000억 원(2020년 기준)
- 주요 사업: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ZKW

- 매출: 1조4000억 원(2020년 기준)
- 주요 사업: 자동차 조명

LG 마그나 이퍼워트레인(7월 출범)

- 매출: 5000억 원(올해 전망치)
- 주요 사업: 전기차 동력전달장치

(JV) 설립과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의 인력재편을 계기로 전장 사업에 기술력을 더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스위스 소프트웨어 업체 록스포트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알루토'를 출범했으며, 7월에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VS(자동차부품) 사업본부, 램프 사업을 하는 ZKW, 파워트레인 담당 '엘지 마그나 이퍼워트레인' 등 3대 축으로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오르게 된다.

LG전자의 VS사업본부 투자액도 2015년 2072억 원에서 지난해 4721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생산능력 향상 등을 위해 VS사업본부에 6138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19년 6070억 원을 뛰어넘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LG전자 사업본부 전체 투자금액 중 VS사업본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9%에서 지난해 18%까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가 출시설과 샤오미의 전기차 도전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기술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막강한 통신 기술을 확보한 LG전자가 전장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개미도 부의 재분배” vs “증권사 배만 불러줘”

주식 분할투자 엇갈린 시선

“소수점매매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만든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법이다.” 지난달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 담기’ 토론회에서 나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자산가보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어려워져 국내 주식 소수점매매가 대안이란 설명이다.

동학개미들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액 투자자들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의 늪으로 몰지 말고,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고액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기회를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모바일 기반 증권사의 상업논리라는 지적도 많다.

◇소수점매매는 부의 재분배= 주린이에게 50만~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주는 그림의 떡이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부터 SK까지 3월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 평균 주가(종가 기준)는 40만5035원이었다. 이들 종목의 2019년 말 평균 주가는 23만6535원 수준으로, 1년 3개월 만에 71% 올랐다. 기존 투자

투자 인식 개선·진입 장벽 낮춰

소액 자금으로 투자 기회 확대
시장 위험관리 기능 강화 시너지

도입 근거 약하고 상업논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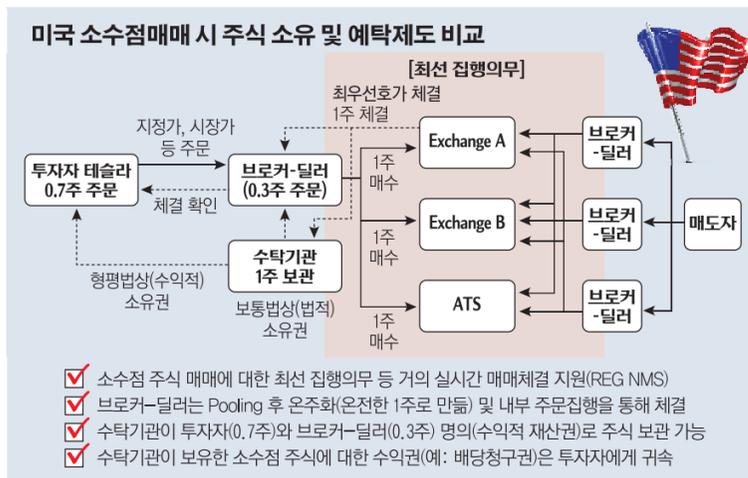
거래 시스템 따라 수수료 달라져
매수·매도 시황 즉시 대응 불가

자는 쓸쓸한 수익을 냈다. 반면 이제 새로 진입하는 ‘주린이’에게는 높아진 주가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여지가 있다. 시총 20위권 중 주당 10만 원을 넘지 않는 종목은 1년 전 7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 4개뿐이다.

전문가들은 소수점매매가 부의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주식 소수점매매가 가능해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이 소액 투자자에게도 가능해짐에 따라 위험관리가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겸 카카오오피 대표는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



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소수점매매’에 있다”고 말했다.

◇상업논리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도입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가 주식이 많지 않고, 상업 논리라는 얘기가. 한 증권사 관계자는 “디테일 부문은 선점 효과가 중요한데, 값이 비싼 해외 유명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해외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로 가고 있다”며 “해외 서비스라도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고민은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새롭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을 출시하면서 해외 주식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신생 증권사일수록 더 크다. 두 증권사는 올해 중 해외 주식 소수점매매 서비스와 함께 해외 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수점매매 신청을 받지 않아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도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1주당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소수점 단위로 쪼

개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 해당 의결권을 소유주들이 어떻게 나눌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으로서 목소리 큰 주주들이 늘어날 것을 반길 리 없다.

증권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식 거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거래방식이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의 소수점 거래의 경우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할 수 있다. 또 주식의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은 시장 가격에 즉시 대응할 수 없고, 예약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수수료도 비싸다. 일반적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약 0.1% 수준이라면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0.25%로 두 배 이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가 고객 소수 단위 주식을 모으거나 증권사가 채워주는 형태로 온주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한 뒤 고객이 주문한 만큼 소수 단위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가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7~8개 증권사에서 소수점 주식 매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염지 기자 eom@

국내 주식의 소수점매매 서비스 도입을 가장 기다리는 증권사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두 핀테크 증권사다. 이들의 주타깃층이 2030세대인데다 기존 증권사와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해외에서도 로빈후드와 같은 핀테크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소수점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연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모두 거래가능한 MTS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국내 주식 소수점매매 서비스는 선례가 없는 만큼 금융 당국에 소수점매매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증권사 “시범운영으로 효과 살펴보자”

“美 젊은층 중심 ‘소수점 거래’ 활발... 혁신상품 출시 등 업계 변화 기대”

다. 카카오페이증권의 MTS는 증권업계 최초로 원장관리시스템에 분리아키택처(MSA)를 적용한다. MSA는 각 정보기술(IT)이 독립 구성된 방식으로 ‘소수점매매’에 유리한 기술이다.

류영준 카카오오피 대표는 “소수점매매 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도입 전에 혁신금융서

비스를 테스트베드로 돌려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례가 있는 해외주식부터 많은 기업에 혁신금융서비스의 길이 열린다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점매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지향하는 ‘투자’에 대한 방향과 일치한다. 카

카오페이증권은 현재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고 남은 100, 200원 잔액을 펀드에 자동투자하는 방식 등 ‘소액으로 투자하기’ 서비스를 주력으로 밀고 있다.

토스증권 역시 ‘소수점매매’ 특례 도입을 금융 당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증권은 하반기 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 소수점매매 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는 게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특히 토스증권의 주요 고객층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소수점매매 도입 시 활용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증권은 전체 고객의 68%가 2030세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증권사는 2030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로빈후드”라면서 “소수점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혁신적인 금융 상품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과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염지 기자 eom@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N할 때 바로 환전!

환전은 우대환율로! 원할 때 사고, 팔고, 쓰자!



우리WON뱅킹 환전주머니



간편보관은 기본! 수익률 확인까지!!

환전주머니 활용 TIP

- 우리WON뱅킹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환전
- 환율 체크를 스마트하게! 환전 수익률 정보제공

보관과 수령을 자유롭게

- 기간 제한 없이 원화/외화 자유롭게 입출금
- 원하는 수령일과 수령점 지정 가능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 시 우대율은 환전 통화 및 WON뱅킹 로그인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환전 가능 통화는 USD, JPY, EUR, CNY, CAD, HKD, SGD, CHF, NZD, THB, AUD, GBP, DKK, SEK, NOK, VND, MYR, RUB, TWD, PHP, IDR입니다. · 우리은행 비대면 환전 신청 건 합산하여 미수령 외화잔액 USD 10,000 상당액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유목적으로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환전 시 국제정 및 관세청에 통보되며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하여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출국 시 관할 세관에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 신청 시 해당 통화의 현찰 사실 때 환율, 원화로 재환전 시 해당 통화의 현찰 파실 때 환율이 적용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및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 03. 26 준법감시안-1832 심의필 (유효기간 : 2022. 12. 31)

“거짓말쟁이” “반칙 여왕” 결국 비방으로 끝난 정책토론

재보선 D-1 ‘마지막 토론’

4·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집중 공약을 위해 인간힘을 썼다. 그동안 의혹을 앞세워 네거티브 공세를 강행했던 토론과 달리 정책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정책 토론으로 시작한 토론은 결국 비방으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거짓말쟁이’, ‘존재 자체가 문제’ 등의 막말이 난무하는 토론장으로 전락했다.

박 후보와 오 후보는 5일 세븐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 서로의 공약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1개 다핵도시, 수직정원에 대한 현실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오 후보는 “남산 한 군데에서 내뿜는 산소 양 12만4900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직정원을 짓는 데 수 조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박 후보는 “무조건 해야한다. 종로 녹지비율의 20분의 1밖에 안되는 영등포 주민도 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후보는 “공약 철회하는 게 나을 듯”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21개 다핵도시에 대해선 “25개 자치구인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빠져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10년 전 낡은 행정이다. 25개 자치구는 행정 개념이며, 다핵도시는 시공간 개념으로 25개를 다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4개 자치구 부재’와 ‘낡은 사고’를 각각 주장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오 후보는 박 후

부동산정책 송곳 검증에 시간 할애 못 “수직정원 수조 필요...철회”

박, 용산참사·내곡동 의혹 또 제기 상대방 칭찬시간 가졌지만...막말

보에게 “그 사이 바우처, 대중교통 지원 등 공약이 늘어나며 예산이 몇 천억원이 늘었다. 몇 개만 합쳐도 3조 원이 넘는다”면서 “서울시 부채가 10조 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후보는 “부채는 오 후보가 만든 거 아니냐, 10년간 갚느라 고생했다”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오 후보는 “4조 원 늘었고 당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 후보는 또 “7조 원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하면 무려 20조 원”이라고 정정하자 오 후보는 “건전한 빛이었다”고 반박했다.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지수제 폐지에 대한 주민 동의를 생략하면 용산참사 같은 일 다시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전체를 생략한 게 아니라 비율을 완화했을 뿐, 완전 폐지도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처음엔 폐지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완화라고 말을 바꾼다”고 비난했다.

이번 토론에서도 어김없이 내곡동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지난해 토론과 마찬가지로 작심한 듯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했으며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박 후보는 “2005년 6월 처남이 측량 신청 후 곧바로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위한 설계 용역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개발 사실을 사전에 모를수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리주택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결재가 됐고, 국장 전결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 결정 국책사업으로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해제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칭찬의 시간도 마련됐다. 두 후보는 사회자 제안으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여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대해 “언변이 좋으신 것 같고 패션감각도 뛰어나신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도 “같이 공유했던 시간이 없게 걸로 보이는 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어떤 부

분을 칭찬할까 고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오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유리한 편이 있는데 집념과 열정으로 4선 의원, 장관까지 하시고 서울시장까지 도전했다”면서 “이 같은 커리어우먼으로서의 경력이 우리 딸들은 물론 젊은 여성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훈훈한 시간도 잠시, 곧바로 태세 전환하며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막말로 이어졌다.

우선 박 후보가 오 후보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비유한 것이 공방을 더욱 치열하게 했다. 오 후보가 처남이 기자회견 안 하

는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후보가 “BBK처럼 내버려두다 13년 만에 밝혀지길 바라냐”고 지적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거짓말은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며,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며 오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또 오 후보는 민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박 후보가 본인의 과거 행적을 자주 들추자 “반칙의 여왕”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윤호 기자 uknow@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5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거리유세를 한 뒤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내가 부산 살리겠다” 김영춘·박형준 한표 호소

김 “사상공단, 스마트시티로 조성” 박 “부산 민심의 무서움 보여줘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부산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사상구를 찾아 ‘스마트 시티’ 조성을 약속했고 박 후보는 부산 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두 후보는 막판 표심을 얻기 위

해 노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수영교차로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사상구를 찾아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부산 경제를 살릴 일꾼 김영춘이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드린다”며 “올해 시장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정치 선거가 아니라 어려운 부산의 살림을 살릴 경제시장을 뽑는 일꾼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공단을 서울 구로공단과 같은 스마트 첨단 산업단지로 변신시킬 것”이라며 “사상구 발전과 부산 발전의 기회를 저 김영춘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오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근 인사를 한 후 오후엔 수영구 유세

를 이어갔다. 이후 부산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막판 표심 얻기에 나섰다.

그는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자”며 “위대한 부산 시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민심이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선 “얼토당토않은 선거 공작은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짓궂음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박준상 기자 joooon@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5일 부산 수영구 아파트단지 앞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산업 전반에 경제회복 온기”

“국민·기업 합심 극복한 결과 기업과 소통·협력 강화할 것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은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반등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백신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일환 기자 whan@

與 “이해충돌방지법 합의 무산땐 단독 처리”

野 “10일 시한 정한 적 없어”

지난 2일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10일에 합의처리하지는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정 일자를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지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는 방침”이라며 “10일에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통과가) 무산

된다면 우리 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일로 기한을 잡아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국민의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 의원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통과시켜 보자고 민주당에 말한 건 맞지만, 특정 일자로 못 박은 적은 없다”며 “현재 법 조문들 1회독을 마친 상태로 대상 범위 등 이견이 나오는 지점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인 7일 이후에 2~3회 정도 소위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업무 축소' 방침에 사참위 강력 반발

“고발·수사요청 권한 없어야” vs “피해자 구제 고유 권한”

사참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제외
환경부 “법 체계상 자동으로 제외”
사참위 “위원회 무력화시키는 조치”
법제처, 심사 요청엔 면밀 검토 예정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처리 권한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와 조치 권한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고발과 수사 등 후속조치 권한도 법

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

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의견을 사참위에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고발·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등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을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

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사참위는 지난해 법 개정이 원인 규명 업무에 국한됐고, 업무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권한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발과 수사 요청 권한에 대해서도 법 개정과 관련이 없고, 위원회의 법적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재한 2차례 회의에서도 사참위와 환경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기관 사이 이견을 조율하는 법제처의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심사 요청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심사가 요청되면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적용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식당에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출입명부 작성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시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42.7억 달러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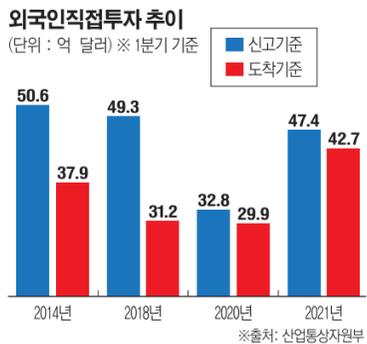
獨 DH '배민' 인수에 42.9% 증가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투심 되살아나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외투)가 도착 기준 4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투자가 인수합병(M&A)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외투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다던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외투 동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외투 신고는 44.7% 증가한 47억 4000만 달러, 도착은 42.9% 증가한 4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착액은 1분기 역대 최고 액수이며 신고도 역대 3번째를 기록해 앞으로 자금유입을 통한 투자활성화 전망도 밝다.

산업부는 지난해 외투 신고·도착 모두 10% 넘게 감소했으나 화상상담·웨비나 등



온라인IR,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으로 올해 1분기부터 40%이상 상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인수에 21억 달러를 신고했다. G사도 교육분야 ICT 기술을 융합해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 기업과 M&A를 했다.

아울러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

다. 코로나19 이후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공유경제 등 비대면 산업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투자 신고는 39.2% 증가한 27억 7000만 달러, 도착은 12.2% 증가한 23억 5000만 달러다.

그린 뉴딜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계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 신고가 전년 동기(700만달러) 대비 약 8배인 5500만달러로 성장했다. 반면 첨단소부장 신고는 전년 4억 4700만 달러에서 2억 6500만 달러로 줄었다.

UNCTAD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외투가 올해 5~10% 추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K-뉴딜, 소부장 등 우리 산업 정책과 연계한 첨단투자 확대를 통해 2021년 FDI 플러스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수수료 0.2%P 할인

국세청·신용보증기금 MOU 체결

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 이용 시 수수료는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5일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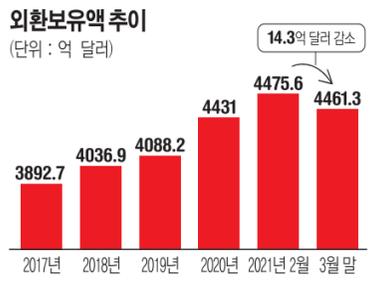
혜택 기간은 표창일로부터 3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기존 혜택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수수료를 0.2%P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용(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외환보유액 2년 만에 세계 8위 탈환

2월말 4476억 달러로 한계단 상승
지난달 14.3억 줄어든 4461.3억 달러
美 달러화 강제 여파 환산액 감소 탓



외환보유액이 2년만에 세계 8위를 탈환했다. 최근 7개월 연속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4476억 달러)는 세계 8위를 기록해 한 계단 상승했다. 8위를 기록한 것은 201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사우디는 4412억 달러로 9위로 추락했다. 세계 4위 수준을 자랑하던 사우디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9년 6월 러시아에 그 자리를 내준 후, 지난해 3월엔 대만과 인도에 밀렸고, 그해 7~8월엔 7위 자리를 놓고 홍콩과 엇치락뒤치락하다, 9월부터 8위로 주저앉았다.

1위는 3조2050억 달러를 보인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3794억 달러), 스위스(1조749억 달러), 러시아(5863억

달러) 순이었다. 홍콩(4957억 달러)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7위를 기록했다.

신준영 한은 외환외계팀장은 “사우디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석유수출이 줄고 유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대비 14억3000만 달러(0.3%) 감소한 446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화 강세폭에 비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4300억 달러를 넘는 유가증권 규모에 이자 및 운용수익 증가세가 계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전월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소 이력제’ 빅데이터 민간에 공개

축산업·농가 컨설팅에 활용 가능

소 이력제를 통해 축적된 농장별 사육현황, 출생, 폐사, 이동, 도축 등 관련 빅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소 이력제 세부정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2008년 12월부터 농장에서 개별별로 관리하고 도축·유통되는 축산물을 추적·관리하는 소 이력제를 실시 중이다.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소 이력제 세부정보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개방시스템에서 소 이력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 이력정보를 공개해 민간 연구기관, 대학, 축산 컨설팅·사료·자재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분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도별 소 사육현황, 출생·폐사·도축 마릿수와 월령 등을 활용해 향후 사육 마릿

수를 예측해 농가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연관 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군별 정보까지 공개되므로 소 사육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육질등급과 도체중량 등이 포함된 도축정보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엔 공개되는 정보가 한우 관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민간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준비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소 이력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스팩’ 바람 부는 亞 美 비하면 ‘황무지’

亞 스팩 27억 달러 작년 2배
과도한 투자자 보호 ‘걸림돌’
日·홍콩 등 제도 정비 안간힘

미국을 휩쓸었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열풍이 자국에서도 일어나길 바라는 증권 거래소들이 아시아에서 늘고 있다.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의 시선은 미국을 향하고 있다.

5일 닛케이아시아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를 이용해 올해 첫 10주간 전 세계 스팩을 통한 기업공개(IPO) 규모가 767억 달러(약 86조 원)로 지난해 전체 규모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보다 불과 25억 달러 적은 수준이었다.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스팩 6곳의 IPO 규모는 27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전체 금액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장에서는 몇몇 아시아 스타트업을 잠재적인 스팩 대상으로 눈여겨보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싱가포르의 그랩과 라이벌인 인도네시아 고객,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가 그 주인공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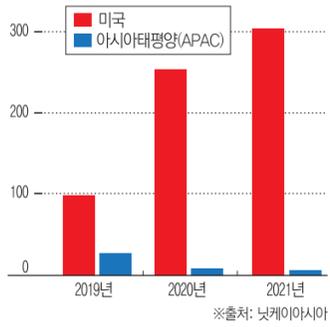
이들을 붙잡아 스팩 열풍에 동참하기 위해 아시아 증권거래소들도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스팩에 대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 피드백을 거래소 산하 규제 당국(RegCo)에 요청했고, 이에 당국은 거래소에 시가총액 최소 3억 달러와 합병 기한 3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기존 검토를 거쳐 스팩 제도를 올해 중반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홍콩도 연내 스팩 허용을 목표로 규정을 검토 중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거래소가 향후 몇 달 안에 독자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스팩 IPO 견수

(단위 : 건) ※ 2021년은 3월 30일까지



스팩을 허용할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다.

다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 아시아 스팩 시장은 황무지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번거로운 상장 요구 사항과 상장 위원회의 오랜 심사 과정, 우회 상장에 대한 단속 등을 장애물로 꼽는다.

모리슨앤드포스터의 마르시아 엘리 스팩파트너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미국과 달리 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춰 스팩 후보들이 상장에 적합한지를 두고 질적 검토를 한다”며 “보호 정책이 너무 많이 마련되면 기존 IPO에 비해 진입 장점이 줄어들고, 투자자와 스팩 후보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호건라벨스의 스테파니 탕 중국 사모펀드 부문 대표는 “아시아에서 투자자들이 상품을 이해하고 규제 당국이 스팩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련의 이유로 투자자들은 뉴욕 상장을 선호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1월과 3월 나스닥에 3개 스팩을 상장했다. 현재까지 11억50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인수 대상으로 IT 업종을 살피고 있다. 싱가포르 비스타미디어벤처시큐리티(VMAC)는 지난해 중동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앙가미와 나스닥에 스팩 상장해 2억2000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G2만 독주” 세계 경제회복 ‘위험한 양극화’

“美 6.3%·中 8.5% 성장” 유로존·러시아·브라질 전망은 줄줄이 하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양극화할 위험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에 세계 경제가 반세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1분기 세계 경제는 전분기 대비 약 1.3%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전체 성장률은 6.9%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나친 불균형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회복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도 다른 점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반면,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은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이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가 3.5% 역성장한 데 이어 큰

전 세계 무역량 증감 추이 및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분석



폭 반등하는 셈이다. 중국 역시 지난해 2.3%에서 올해 8.5%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PIIE는 유로존(6.0%→4.4%), 영국(4.0%→3.8%), 일본(5.0%→2.5%), 러시아(3.5%→2.7%), 브라질(0.5%→마이너스1.0%)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양극화 배경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부양책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백신 추적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인구 4분의 1이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받은 반면, EU의 백신 접종자 수는

전체의 10%에 못 미친다. 유럽은 백신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접종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는 사이 유럽 주요국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현실화로 봉쇄 조치 강화에 나섰다. 세 번째 전국 이동제한조치를 내린 프랑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경기부양책 투입 규모와 속도에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까지 내놨다. 중국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냈다. 반면 EU의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 경제회복기금은 하반기에나 집행될 전망이다.

브루스 캐스먼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인 적이 없다”면서 “백신 접종과 재정정책 차이가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홍수에 휩쓸린 인도, 대피 돕는 군인들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5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동 누사 텡가라주 말라카 텡가 시내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주말 폭우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수십 채와 도로가 토사에 매몰되고 지역인 수천 명이 대피소에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기준 55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폭우 피해로 인도네시아 인근 동티모르에서도 최소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라카 텡가/AP연합뉴스

원전 미련 못 버린 日 美 원자로 건설 합류

일본 메이저 플랜트 업체 닛키홀딩스(영문명 JGC)가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차세대 소형 원자로 건설에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일본이 원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형 원자로를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닛케이아시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키홀딩스는 미국 원자력 스타트업 뉴스케일파워에 4000만 달러(약 451억 원)를 출자해 3%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뉴스케일파워가 설계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미국 아이다호 주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 두산중공업은 앞서 2019년 뉴스케일파워에 약 44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SMR에 들어갈 원자로 모듈 등 기자재 납품 계약을 따낸

바 있다.

뉴스케일은 지난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SMR에 대한 설계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으며, 이번 아이다호주에 추진되는 SMR 프로젝트는 뉴스케일의 첫 수주다.

뉴스케일의 SMR은 여러 소형 원자로를 통째로 거대한 수조에 가라앉혀 냉각하는 특징이다. 냉각수 공급이 멈춰도 수조의 물이 모두 증발할 때까지 1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 원자로의 열이 내려 벨트다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닛키홀딩스의 이번 SMR 건설 참여는 미국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탈탄소, 그린에너지 사업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개발(M&A)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지난해부터 ‘녹색 성장 전략’ 일환으로 소형 원자로 해외 시범 사업과 연계한 자국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힘 빠진 ‘로빈후더’ 순매입 두 달새 60% 급감

올해 초 미국 주식시장에서 ‘밈 주식(Meme stock,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식)’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뽐냈던 개미투자자들이 최근 전투력을 급격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진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각종 지표에서 개미들의 시장 참여 열기가 식었다는 게 감지된다. 개인투자자 데이터 분석업체 반다리서치는 지난해 26일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입이 7억7200만 달러(약 8800억 원)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29일 20억 달러에서 60% 급감했다고 밝혔다.

3월 소매 증권 사이트 트래픽도 폭 떨어졌다. 웹 분석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수수료 무료 증권거래 앱인 로빈후드의 3월 트래픽은 1월 말보다 63% 급감했다. 옵션 시장에서의 활동 둔화도 두드러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입 5일 평균 추이 (단위 : 억 달러)



다. 개미들의 콜 옵션 거래량은 1월 말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강세 포지션에서 물러났다. 1월 초 기술주를 끌어담으면서 주식시장을 달구고 오프라인 비디오 유통업체 ‘게임스톱’ 등 특정 주식을 집중 매수해 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벌인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개미군단의 열기가 급격히 식은 배경을 두고 여러 요인이 지적된다.

우선 성장주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개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 2월 12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

닥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개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주식인 테슬라, 니오, 애플은 각각 9% 이상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대적인 실적 저조도 영향을 미쳤다. S&P500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경기순환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 들어 7% 상승했다. 반면 2월 중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은 S&P 500지수보다 10%가량 낮았다.

코로나발(發) 봉쇄 조치 해제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이 억눌린 소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증시 열기를 식히는 데 일조했다. 도이체방크의 파라그와테 투자전략가는 “콜옵션의 감소 관련 가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항공 승객, 레스토랑 예약, 애플 지도 사용이 모두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1월 증시 과열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슈퍼 부양안에 따라 증시 랠리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부동산 시세, 매물정보, 단지정보를 한눈에

리브부동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리브부동산을 다운 받으세요



한 번에 알아보는 **꿀시세**

KB시세부터 AI예측시세까지 쉽게 확인하는 부동산 **가격정보**



한 번에 확인하는 **꿀매물**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꼭 집어서 알려주는 **매물정보**



한 번에 찾아보는 **꿀단지**

여러 포털 사이트, SNS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한꺼번에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정보**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으로 문의하시거나 리브부동산 홈페이지(<https://kbland.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589호(2021.3.26), 광고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NIM: 순이자마진>

대출 석달 새 25조 ↑ ‘님’ 오셨네 은행 미소

1분기 대출, 中企 중심 2% 성장을 순이자마진 12분기 만에 상승 관측
코로나 대출 건전성 확보 관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시중은행의 대출은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신금리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 현상이 맞물리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최근 3년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올해 1분기 상승 전환할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기준 총 대출 규모는 1284조46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1259조5672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불과 3개월 만에 25조 원가량 확대된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러한 높은 대출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이미 지난해 높은 대출 증가세를 보였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또한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 대출 성장률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역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

은행별 1분기 대출 성장률 전망

(단위: %) ※ 직전 분기 대비 ※출처: 하나금융투자



기 대출 성장률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에 은행마다 목표 성장률을 잡아두는데 올해 가계보다 중소기업 쪽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목표 성장률이 빠르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출 상승세에 NIM도 상승하며 은행의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NIM은 은행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은행권의 NIM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1.38%)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평균 4bp(베이스포인트) 이상

상승해 12개 분기만에 상승 전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높은 수신상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조달 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이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상승하고 있어 NIM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저원가성예금도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수신 풀오버 등에 따라 조달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신규취급액 기준이기는 하지만 신용대출과 집단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큰폭 상승하면서 아직은 크지 않지만 전체 NIM에 상승 압력을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NIM 상승세는 1분기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NIM은 통상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수신금리 하락에 따라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가 멈췄지만, 수신금리는 매월 3~4bp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예대금리차가 매월 벌어

지고 있다.

2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동향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수시입출금 포함)는 2.10%로 전월대비 3bp 상승했고,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는 1.89%로 전월대비 4bp 상승했다.

특히 예대금리차가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의 시중금리 상승 현상이 주로 3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국한돼 있지만 장기물이 계속 상승할 경우 기업대출금리가 연동돼 있는 단기물도 뒤따라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올해 NIM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시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시중은행의 연간 수익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의 문제는 우려할 부분이란 업계의 시각이다. 가계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며 연체율 증가 등 대출건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NIM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상환 앞둔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 충실히 안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당부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주체) 모두 ‘원·원’하고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달라.”



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은 5일 오전 신한은행 성수동 기업금융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동참하는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은행권은 이달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상환유예 신청 차주가 원할 경우 유예 이자 또는 원리금을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 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양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직원 평균보수가 8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5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공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평균 보수는 7900만 원, 케이뱅크는 8000만 원이었다. 이는 두 인터넷은행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연말 기준 임직원 수로 나눈 값이다.

최근 3년간 임직원 평균 보수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2018년 6600만 원, 2019년 7100만 원, 2020년 7900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18년 7200만 원, 2019년 8200만 원, 2020년 8000만 원이었다.

인터넷銀 직원 평균 연봉 8000만원 윤호영 카뱅 대표 5억6000만원 최고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연중 경력 입사자들이 많다. 이 경우 보수총액에는 중도 입사자의 ‘연환산 금액’이 아닌 ‘실지급액’이 반영된다. 때문에 보고서에 공개된 임직원 평균 보수와 실제 평균 보수 값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 수에는 연중 퇴직자는 제외되지만, 퇴직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직원 보수총액에는 포함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창구 직원이 없는 대신 콜센터 고객상담 직원이 많은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2년2개월로 짧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900만 원이었다. 반면, 평균 근속연수가 2년7개월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미미한 남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9700만 원(급여 산출시 등기임원은 제

외)으로 월등히 높았다.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수(인턴 포함)는 2018년 말 603명, 2019년 말 786명, 2020년 말 913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자본 확충 문제로 작년 상반기까지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케이뱅크는 2018년 말 249명, 2019년 말 287명, 2020년 말 299명으로 임직원 수를 비슷하게 유지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3억 5600만 원의 급여와 2억800만 원의 성과급을 합쳐 5억64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카카오뱅크 임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연봉을 공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재미

공감

즐거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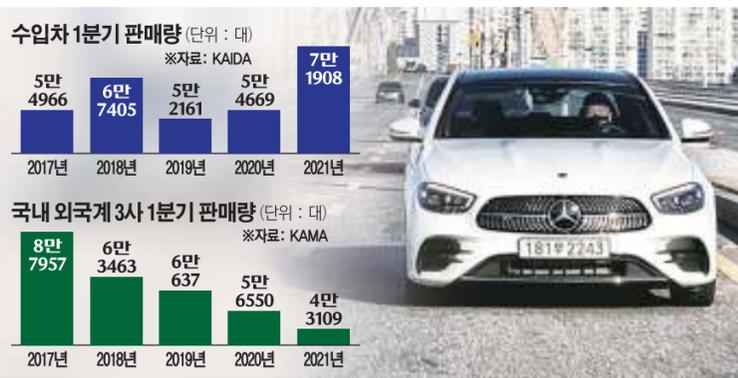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현대차·기아·벤츠·BMW〉

수입차, 1분기 최대 실적... 국내 車시장 '4강 체제' 예고

수입차, 올 누적 판매 7만대 ↑
전년 동기 대비 31.5% 늘어
외국계 3사, IMF 後 최저 실적



수입차가 1분기에만 7만 대 넘게 판매되며 3개월 연속 흥행을 이어갔다. 반면, 국내 외국계 완성차 3사의 내수 판매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저조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현대차·기아와 일부 수입 브랜드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2만 7297대로 지난해 3월보다 34.4% 급증했다. 역대 3월 판매량으로는 최대치다.

특히, 수입차는 1분기 누적 판매량도 처음으로 7만 대 선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1~3월 누적 판매량은 7만1908대로, 전년 동기(5만4669대)보다 31.5% 늘

었다. 국산차와 비교하면 수입차 시장의 흥행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다. 5사의 내수 판매는 올해 들어 1월 16.7%, 2월 24.0% 등 성장세를 보였지만, 3월에는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특히,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외국계 3사의 내수 판

매량이 저조한 탓이 컸다. 각 사 자료를 종합하면 3사의 1분기 내수 판매량은 4만 31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6550대)보다 23.8% 감소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였던 1998년(3만1848대) 이후 23년 만의 최소치다.

외국계 3사는 1분기 내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판매량을 지속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지난

달 판매량은 7597대로 △한국지엠(6149대) △르노삼성(5695대) △쌍용차(4306대)보다 많았다.

외국계 3사는 노사 갈등과 신차의 부재, 경영 악화 등이 겹치며 연초부터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 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위기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3사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월보다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차의 인기에는 소비자의 고급차 선호 현상, 업계의 신차 투입 등이 영향을 준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소비자의 고급 차종 선호 현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팔린 국산차 1대의 평균 판매금액은 3000만 원대를 넘어며 전년보다 9.7% 높아졌고, 수입차 평균 판매금액도 5.9% 증가한 6300만 원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점점 더 크고 비싼 차를 선호하는 셈이다. 모든 수입 브랜드가 판매

를 정상화했고, 신차 제품군을 늘린 점도 흥행에 영향을 줬다.

수입차 시장 1, 2위를 유지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각각 E클래스와 5시리즈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볼보도 주력 제품군에 새로운 파워트레인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를 도입하며 친환경차 수요를 공략했다.

지난달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순위는 6012대를 판매한 BMW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어 아우디 2737대 △폭스바겐 1628대 △지프 1557대 △볼보 1251대 △미니 1224대 순이었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250이었다. 한 달간 1964대가 팔렸고, 1분기 베스트셀링 모델로도 선정됐다. 2위는 아우디 A6 45 TFSI(573대), 3위는 메르세데스-벤츠 E350 4MATIC(564대)로 집계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수십만 번 접었다 펴도 흠집 無

코오롱인더 필름 '폴더블 노트북' 첫 적용

독자 개발한 투명 CPI®필름 온도 등 타소재比 내구성 높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CPI®필름(왼쪽)과 CPI®필름이 사용된 레노버의 X1 폴딩 노트북(오른쪽).

글로벌 PC업체 레노버가 출시한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생산한 투명 PI필름이 사용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5일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딩에 자사 투명 PI필름 'CPI®필름'이 커버윈도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독자 개발한 CPI®필름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수십만 번을 접어도 흠집이 나지 않아 폴더블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로 사용되는

스트리의 CPI®필름이 사용된 X1 폴딩은 13.3인치짜리 화면을 쉽게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노트북이다.

투명 PI필름이 노트북과 같이 중대형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막유리 커버윈도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펜 기술이 세계 최초로 사용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X1 폴딩 노트북을 발판으로 새로운 폼팩터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일 코오롱인더스트리 본부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제품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쌍용차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두 차종은 거대한 라디에이터그릴과 일체형 헤드램프를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e-XDi220 LET' 디젤 엔진에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187마력·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낸다. 칸은 확대된 적재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토크가 42.8kg·m으로 스포츠 모델보다 높다.

쌍용자동차가 픽업트럭 '더 뉴 렉스턴 스포츠'와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사진)'을 5일 출시했다. 두 차종은 거대한 라디에이터그릴과 일체형 헤드램프를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e-XDi220 LET' 디젤 엔진에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187마력·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낸다. 칸은 확대된 적재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토크가 42.8kg·m으로 스포츠 모델보다 높다.

사진제공 쌍용차

포스코케미칼 '얼티엄셀즈'에 전기차 음극재 공급

배터리 수명·충전 속도 향상

포스코케미칼이 독자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급속 충전을 돕는 음극재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배터리사 '얼티엄셀즈'에 공급된다.

포스코케미칼은 5일 얼티엄셀즈 생산 시점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극재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를 함께 공급하게 된 것이다.

포스코케미칼이 공급하는 제품은 독자 개발한 저팽창 음극재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안전성, 수명, 충전 속도 성능을 향상하면서 가격을 낮춘 소재로 평가된다.

현재 배터리 사들이 사용하는 음극재는 천연흑연계와 인조흑연계로 나뉜다. 포스코케미칼은 두 제품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살린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천연흑연을 원료로 사용해 가격을 낮추면서 인조흑연과 같은 수준으로 수명을 늘린 저팽창 음극재 개발을 추진했던 결과였다. 포스코케미칼은 미국에 음극재를 공급해 세계 4위(시장 점유율 11%) 수준인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지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

만도, 연구개발 통합조직 '소프트웨어 캠퍼스' 신설

핵심 인재 400명 한자리 모아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만도가 글로벌 연구개발(R&D) 통합 조직인 '소프트웨어 캠퍼스'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이달 1일자로 출범한 소프트웨어 캠퍼스는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등 3개 사업부문(BU)과 해외 연구소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을 하나로 합쳐 핵심

인재 400명을 모았다.

만도는 소프트웨어 캠퍼스를 앞세워 통합 제어 솔루션과 차세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대학교·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인력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캠퍼스 리더는 전자식 변속 레버(SbW) 개발의 주역인 배홍용 스티어링 BU장(전무)이 겸직한다. 만도는 이와 함께 자율주

행, 전기차 등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기반한 대응을 위해 지난월부터 '넥스트 ERP(글로벌 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새롭게 도입되는 ERP는 SAP 솔루션 바탕으로 향후 프로세스, 데이터, 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혁신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넥스트 ERP는 2023년 1월 미국, 독일, 중국 등 글로벌 18개 법인에서 동시에 운영되기 시작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차세대 전사자원관리 시스템 N-ERP 도입

삼성전자가 차세대 ERP(전사자원관리) 시스템인 'N-ERP'를 구축해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ERP는 기업의 물적, 재무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과 융·복합화 등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최신 기술의 전문 ERP 솔루션 패키지를 기반으로 30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개

발했다.

이 시스템은 동·서남아, 중국 법인에서 우선 적용됐고, 내년 1월까지 전 세계 법인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N-ERP'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성능 향상 △D2C(Direct to Consumer) 등 새로운 비즈니스 대응을 위해 유연한 아키텍처·프로세스 구축 △인공지능을 통한 업무 의사결정 지원과 OCR(광학적 문자 판독)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대량의

소비자 주문 현황과 전체 공급망(Supply Chain)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한 경영 시뮬레이션도 가능해 임직원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내외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내외부 조직 전체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삼성전자 문성우 경영혁신센터장(전무)은 "최신 기술 기반 ERP 시스템 구축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 선도적인 사례"라며 "N-ERP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혁신을 받쳐줄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중전기차 니오 SUV '한국타이어' 장착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중국전기차 기업 니오(NIO)의 핵심 모델 'ES6'와 'EC6'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니오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로, 지난해에만 4만3000여 대가 판매되며 급성장 중인 기업이다.

니오 'ES6'와 'EC6'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는 '벤투스 S1 에보2 SUV'는 고강성 비드 필러를 장착해 내구성과 주행 성

능을 한층 향상한 타이어다. 노면과 접촉하는 트레드 설계를 최적화해 마른 노면은 물론 젖은 노면에서도 최상의 접지력과 제동 성능을 구현하며, 소음을 최소화해 고속 주행에서도 안락하고 정숙한 주행환경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는 니오와의 파트너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5G 트래픽 LTE 역전 임박, LTE 속도 문제없나?

5G, LTE망 연동해 쓰는 형태... 5G 늘수록 LTE망 품질 저하
이통사·과기정통부 "LTE 트래픽 줄면 속도 오히려 빨라질 것"

5G 전체 트래픽이 조만간 LTE 트래픽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G 단독모드(SA)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5G 트래픽이 LTE를 역전하면 LTE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LTE 전체 트래픽은 32만700테라바이트(TB), 5G 트래픽은 30만5000TB를 기록했다. LTE 트래픽은 지난해 12월 40만에서 30만TB대로 떨어진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5G 트래픽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30만TB를 넘었고, 1월에 32만TB를 기록한 뒤 2월에 소폭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5G 트래픽의 LTE 역전 시점을 빠르면 이달로 보고 있다. 5G 트래픽 증가는 5G 가입자의 해비유저 비중이 크다는 점과 전체 5G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데서 비롯한다. 2월 기준 LTE와 5G 가입자당 트래픽은 각각 8.1GB, 22.9GB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5G 가입자는 1366만2048명에 달한다. 전체 이동 통신 가입자 7082만 명 중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5G는 단독모드(SA)가 아닌 비단독모드(NSA)라는 점이다. NSA는 5G 망과 LTE망을 연동해 쓰는 방식이며, SA는 신호와 트래

픽 모두 5G 망만을 이용한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LTE 다운로드 속도가 사상 처음으로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53.10Mbps로 전년(158.53Mbps)보다 5.43Mbps 떨어졌고, 각사별로 SK텔레콤은 211.37Mbps에서 207.74Mbps, KT는 153.59Mbps에서 142.09Mbps, LG유플러스는 110.62Mbps에서 109.47Mbps로 뒷걸음질 쳤다. 과기정통부는 배경 중 하나로 5G NSA를 언급했다. LTE와 망을 나눠 쓰는 지금의 5G 서비스 특성이 LTE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5G 트래픽이 늘수록 NSA 방식에서는 LTE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신사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기우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NSA 방식에서 5G 데이터를 쓰는 대부분은 유저 플레인으로 5G 기지국과 연동되기 때문에 LT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파를 주고받는 트래픽은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으로 나뉜다. 이용자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중이라고 하면 기지국과 가입자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컨트롤 플레인으로 LTE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영상 스트리밍 데이터를 쓰는 것은 유저 플레인으로 5G 기지

국과 연동된다.

이 같은 이유로 통신사들은 LTE 속도 저하의 원인이 5G NSA에 있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도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LTE 속도 저하의 원인은 NSA에 있기보다 관제센터 등 네트워크 관리 자원이 5G에 집중되고 우선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LTE 트래픽이 줄면 커버리지 가파르게 오하리려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같은 망을 두 명이 쓰다 한 명이 쓰면 이론상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LTE 트래픽이 줄면 속도는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5G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통신사들의 투자가 뒷받침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든 주력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난해 품질평가에서 LTE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SA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별로 각각 SA 상용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KT는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서비스 상용화 시점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라방'에 빠진 中企·소상공인 실시간 소통으로 판로 '활짝'

'팡LIVE' 1시간에 25만뷰
공영쇼핑, 유명 유튜버 맞춘
TV홈쇼핑보다 수수료 저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라방(라이브커머스)'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중소기업 관련 홈쇼핑 채널이 속속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어, 지원책까지 대거 마련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시간으로 고객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홈앤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팡LIVE'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팡LIVE는 홈앤쇼핑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다. 앞서 홈앤쇼핑은 2018년부터 같은 이름의 V커머스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커머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라이브커머스로 선회했다. 홈앤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주 20회 정규편성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번씩 고정으로 방송하고 남은 화치는 스낵성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팀장도 사내 공모를 통해 30대 초반 과장급으로 특별 선임했다. 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공영쇼핑도 라이브커머스 채널 '공영라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MLC)사업'을 신설하고 모바일 방송 기술 관련 시스템을 정착하며 출발을 알렸다. 올해 2월에는 공영라방을 본격적으로 론칭하며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 중이다. 공영쇼핑은 지난 2일 인기 유튜버와 '롤라보 라방'을 진행했다. 쇼호스트가 등장하는 대신 유튜버가 전면에 나서 직접 새꼬막과 주꾸미를 잡고 요리하는 등 생생한 모습을 보여줬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1일 '팡LIVE' 방송은 1시간 동안 25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며 "소통형 방송 진행과 신선



쇼호스트 이지희(왼쪽)와 윤나라가 홈앤쇼핑 라이브 커머스 '팡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홈앤쇼핑

한 콘텐츠가 TV홈쇼핑 주 고객층인 4050 세대를 잡고, 동시에 TV홈쇼핑에 익숙지 않은 2030 세대에 호감을 산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은 "TV홈쇼핑보다 방송 조건이나 비용 제약이 덜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다"며 "TV홈쇼핑보다 수수료가 낮은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영쇼핑 또한 앞서 공영라방을 통해 "다양한 우리 중소벤처기업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소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판로 확대와 실시간 소통이란 강점이 효과를 보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커질 전망이다. 홈앤쇼핑은 전체 팡LIVE 판매자 중 중소기업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와 매출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위메프와 손잡고 'W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부터 디지털커머스 컨설팅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소진공 "직원들 코로나 스트레스 숲속에서 푸세요"

'숲 속 힐링교실' 60명 참가
숲트레킹·일대일 상담 호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숲 속 힐링교실에 참가했다.

소진공은 5일 '온드림 숲 속 힐링교실'에 총 60명의 소진공 직원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온드림 숲 속 힐링교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현장방역관계자 등을 위해 전국의 주요 숲에서 진행되는 치유프로그램이다. 총 1박2일 코스로, 소진공은 지난달인 3월 18일 칠곡을 시작으로 4월 1일 대전, 4월 8일 경북 영주 등 3개소에 총 6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4월 1일부터 2일까지 소진공 직원 20명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트레킹, 일대일 심리상담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봉환(왼쪽) 소진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국립대전숲체원을 찾아 소진공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소진공인시장진흥공단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제천센터 박경희 대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육아를 병행하며 심신이 지칠 때도 있었는데, 1박 2일의 숲 속 힐링교실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며 "향후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에 작년 부터 코로나19 직접대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단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깨끗하고 조용한 숲체원에서 명상, 운동 등을 체험하면서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진공 700여 명의 직원들은 작년 3월 진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누리텔레콤→누리플렉스 사명 변경 "플랫폼 사업 도약"

누리텔레콤이 '누리플렉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기업이미지(CI)를 5일 공개했다.

누리플렉스 상호는 그동안 쌓아온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AI를 접목해 에너지 정보 서비스와 개인 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등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로 전

환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누리플렉스는 상호와 함께 새 CI를 발표했다. 신규 로고는 기존 강렬한 레드 계열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정직과 신뢰의 색인 블루를 채택했다. 심볼마크는 누리의 첫 글자 'N'을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피비유스 피(In-

finite)로 형상화해 누리플렉스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만 누리플렉스 회장은 "CI 변경을 계기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AI를 기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노점상 오늘부터 지원금 50만원 받는다

지난달 사업자 등록자 해당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6일부터 받을 수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

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다. 통상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권철승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위스키만으로 불안” 주류업계 생존법 ‘다다익선’

와인수입사가 위스키를 팔고, 위스키 회사가 맥주를 파는 시대다.

주류업계가 ‘한 우물’ 대신 주종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이틴로나 롯데칠성음료처럼 종합 주류 회사는 이전부터 다양한 주종을 선보여왔지만 전문성이 강한 와인, 위스키, 전통주 전문 주류 회사들은 한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점을 지닌 주종 외에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시도가 늘고 있다. 업소용 주류 판매가 급감한 대신 홈술·혼술족이 늘어나는 등 주류 소비 트렌드 변화가 업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토종 위스키로 위스키 시장 국내 1위에 오른 골든블루는 맥주 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임페리얼의 국내 판권을 인수한 드링크인터내셔널은 자회사를 통해 와인 유통에 공을 들이고 있

다. 또 와인수입사인 아영FBC는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의 국내 론칭을 예고했다. 주류업계가 전문성 대신 주종 다변화에 나서면서 주류 시장도 무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누적 판매 5000만 병을 돌파한 위스키 1위 기업 골든블루는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에 이어 전통주와 증류주, 무알콜 맥주까지 품목을 다변화했다.

골든블루가 유통하는 칼스버그는 173년의 역사를 지닌 덴마크 왕실 공식맥주 브랜드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가 가정용 채널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숙성 증류주 ‘훈’을 출시하며 증류주 시장에도 뛰어 들었다. 골든블루는 지역 전통주인 ‘오미로제’와 ‘문경바람’ 등의 유통도 담당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비알콜 맥주인 ‘칼스버그 0.0’을 국내에 공식 론칭하며 하이틴로음료가 선점해온 시장에도 도

위스키 국내 1위 골든블루 맥주 칼스버그 유통 도전장 와인수입 아영, 위스키 론칭 소비 트렌드 급변 대응 나서



전장을 냈다. 위스키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드링크인터내셔널은 자회사를 통해 와인 수입을 강화하고 있다. 드링크인터내셔널은 자회사 인터리커를 통해 칸 영화제 공식와인인 ‘무똥까데’의

공식 수입을 알렸다. 인터리커가 선보이는 ‘무똥까데’는 총 6종으로 무똥까데 루즈, 블랑, 꾸베 헤리티지, 리저브 마고, 리저브 쏘테른, 리저브 썬데일리옹 등이다. 무똥까데는 보르도 1등급 그랑크뤼 ‘샤또 무똥로칠드’를 만드는 전설적인 와인 명가 바론 필립 드 로칠드가 만든 와인으로 현재 10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연간 1000만병 이상 판매되는 보르도 대표 와인이다.

앞서 인터리커는 150년 전통의 이탈리아 아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블티’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와인수입사로 알려진 아영FBC는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에 진출한다. 아영 FBC는 스코틀랜드 최대 독립 병입기업인 고든앤맥패일이 국내 총판계약을 맺고 이달 중 123년 역사의 클래식 싱글몰트 위스키 ‘벤로막’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고든앤맥패일은 다른 증류소에서 원액을 구입해

이를 숙성시키는 방식의 독립 병입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든앤맥패일이 보유한 싱글몰트 위스키는 300여종에 이른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주종 다변화에 나서는데 배경은 주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단일 주종만 고집할 경우 주종간 인기 트렌드 변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크지만 다른 주종을 함께 취급할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민 술인 소주의 소비는 꾸준하지만 위스키나 전통주, 와인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온 주종”이라며 “소비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류업계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원희 기자 yhh1209@

화장품 ‘어퓨’ 트와이스 업고 日 공략

에이블씨엔씨, 사나·다현 모델 발탁 온라인 사업도 강화

화장품 로드숍 1세대 주역 ‘미샤’의 에이블씨엔씨가 일본 및 온라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약진했던 해외 및 온라인 사업을 발판삼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미샤 매장은 지난해에만 164개가 문을 닫았다. 올 1분기에는 30개가 추가 폐점됐다. 화장품 로드숍 1세대 브랜드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800여 개)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지난해 오프라인 매출이 900억 원대로 대폭 감소하면서 164개의 비효율 매장을 구조조정해 탕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 에이블씨엔씨의 매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에이블씨엔씨의 연결기준 매출은 3044억 원, 영업손실 660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27.9% 감소했고,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올해는 해외 및 온라인 사업에 공들일 예정이다. 지난해 에이블씨엔씨는 전반적인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온라인 부문에서 전년 대비 40%가량 오른 53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같은 기간 해외 부문 실적 감소 폭도 14%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매출 가운데 일본 매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체 해외 부문에서 68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일본 법인 매출만 386억 원으로 일본 진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쿠



선 파운데이션이 일본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일본 시장에 쿠션 제품을 처음 내놓은 지 5년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2026만 개가 팔렸다.

지난해 일본에 첫발을 내디딘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도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쥬시팡 틴트’, 이후 10월 ‘마데카소사이드 크림2X’ 등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장한 데 이어 올해 2월까지 쥬시팡 틴트는 누적 30만 개, 마데카소사이드 크림2X는 5만 개가 팔려나갔다.

일본 인기에 힘입어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어퓨’ 모델로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사나, 다현을 발탁했다. K팝 열풍으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사나, 다현 모델 마케팅으로 어퓨의 일본 시장 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이블씨엔씨는 온라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자사몰 애플리케이션 어플 ‘농크’는 출시 9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론칭 당시 190여 개에 불과했던 입점 브랜드 수도 현재 700여 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농크앱’ 피부 카운셀링 서비스 ‘뷰티톡’도 베타 서비스를 마치고 ‘엔니톡’으로 전환돼 상시 운영 중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던킨 커피 ‘던칸’에 밀봉

SPC그룹 계열사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새로운 음료 용기 ‘던칸(DUNCAN)’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던칸’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과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더불어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고민한 끝에 탄생한 패키지다. 던킨의 ‘던칸’은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됐다. 무엇보다, 알루미늄 캔 형태로 운반이 용이함은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던킨은 고객이 주문하는 동시에 매장에서 메뉴를 바로 제조한 뒤, ‘던칸’에 제품을 담아 완벽히 밀봉한다. 일반 컵에 즐겼을 때보다 제품의 온도와 맛, 향을 유지해 준다. 핫·아이스 음료 모두 밀봉 가능하며, 배달이나 매장에서 포장 주문시 ‘던칸’ 이용이 가능하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우유와 ‘마이밀크’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유통업계 최초로 우유 업계 1위인 서울우유와 손잡고 PL 우유를 선보였다. 트레이더스는 서울우유가 만든 ‘마이밀크 2.4리터’를 트레이더스 자체 브랜드인 ‘티 스탠다드(T STANDARD)’로 출시해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2.4L에 4680원이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서울우유 1.8L×2입(8480원) 대비 리터당 17%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LF 헤지스, ‘쇼피’ 타고 글로벌 영토 확장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싱가포르에 공식 브랜드몰 론칭

LF의 대표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 싱가포르에 공식 브랜드몰을 론칭했다고 5일 밝혔다.

쇼피 싱가포르에 오픈한 헤지스 브랜드몰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는 최초로 남성 및 여성 캐주얼부터 액세서리, 골프웨어까지 한곳에 모아 선보이는 토탈 패션 스토어다.

‘숨인숨’ 형태로 운영되는 브랜드몰은 헤지스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



는 종합 매장의 형태로 구성됐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쇼피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등 7개 아시아 국가를 아우르는 총 6억 명 규모의 동남아 시장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1000만 이상의 셀러가 입점해 총 거래액 40조 원, 총 주문 건수는 28억 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헤지스는 우선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에 주목했다. LF 측은 한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8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헤지스는 쇼피와 함께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특히 쇼피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지 소비자를 더욱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지스의 국내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며 글로벌 패션 토탈 브랜드로서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LF 패션사업총괄 김상균 대표이사 부사장은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 진출을 추진해 헤지스를 K-패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새 단장 마친 롯데호텔 제주, 5월 1일 오픈

‘타임세일’ 패키지 판매 시작

롯데호텔 제주는 리뉴얼을 마친 신규 객실 88실을 5월 1일 오픈한다고 5일 밝혔다. 객실 리뉴얼을 기념하는 타임세일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제주로 향하는 상춘객들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리뉴얼 후 새로 태어난 샤희데움과 코너 스위트룸은 서유럽풍의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샤희데움은 각각 바다 전망과 이국적인 조경의 정원 전망을 갖춘 테라스 오션·가든의 2가지 객실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테라스 오션룸은 제주 바다와 호

텔의 그림 같은 풍경을 시시각각 즐길 수 있어 신혼부부를 비롯한 커플 고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객실이다. 패밀리 트윈 객실의 비중을 높여 3인 이상 가족 고객들에게도 제격이다.

코너 스위트룸은 킹사이즈 침대 2개로 구성된 4인 맞춤형 객실이다. 50.2㎡ 면적의 드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코너 스위트룸은 아름다운 제주 경관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호텔의 고층부에 위치해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최적화됐다.

재단장한 모든 객실은 헤링본 마루 바닥으로 마감돼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에게 친화



적인 롯데호텔 제주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1박당 제공되는 미니바 무료 혜택과 캡슐 커피 머신으로 즐기는 원두 커피도 눈여겨볼 특전이다.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롯데호텔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리뉴얼 객실 오픈을 기념한 ‘타임세일’ 패키지를 5월 오전 0시부터 1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단독 판매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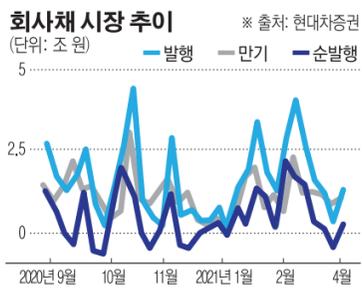
“금리 더 오르기 전에” 달아오른 회사채 시장

기관 수요예측서도 멍칫돈 몰려 한화에어로·SK하이닉스·OCI 등 5월 초까지 자금조달 서두를 듯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시스템의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위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3년물과 5년물로 3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 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역대 최대 자금조달이 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항공과 방산 부문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 열기가 뜨겁다. 기업의 사전청약마다 잇달아 수조 원의 멍칫돈이 몰리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 4월에 만기가 완료되는 국내 회사채는 약 6조1000억 원, 3월 만기 3조4000억 원보다



두 배가량 많다. 역대 4월 기준 최대 물량인 6조5495억 원(2020년 4월)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업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금리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하기에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며 “먼저 4월 회사채 발행물량이 많아 수급 부담이 큰데 3월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회사채 발행기업 처지에서는 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진 SK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연간 발행을 연초나 상반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효성중공업은 940억 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금액은 수요예측(사전청약) 때보다 240억 원 늘어났다. 지난 7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모집금액(7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2270억 원어치 매수 주문이 쏟아지면서 발행액을 늘렸다. 두둑한 실적을 확보한 효성중공업은 회사채 발행자금을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다.

교보증권은 3년물로 2000억 원 모집에 8800억 원의 기관 자금을 받았다. 교보증권은 발행 물량을 3000억 원으로 늘리기

로 했다.

유안타증권은 5300억 원의 투자수요를 확보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실시한 수요예측에 5배가 넘는 자금이 몰린 것이다.

SK에너지가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 5000억 원을 받아내며 대박을 터트렸다. SK에너지는 3년물 1100억 원 모집에 6200억 원, 5년물 1100억 원 모집에 5600억 원, 7년물 300억 원 모집에 9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모집에 2300억 원을 받아냈다.

이들 외에도 우리금융지주, 대우건설, KCC, 현대건설기계, 한화투자증권, 롯데오토리스, 현대위아, GS E&R, 풍산, 현대제과식품 등이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흥행한 데는 발행사(공급)와 투자자(수요)의 ‘입맛’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금리가 낮을 때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금리 상승 압력도 세지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면서다. 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신호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름세를 보인다.

김은기 연구원은 “최근 금리가 반락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는 모습인데 5월 중순 1분기 검토보고서 제출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어, 5월 초까지 회사채 발행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다”이라며 “회사채 수요예측 물량도 지난해 4월 3조5000억 원 대비 2~3조 원이 증가하면서 연초 발행물량이 많았던 2월 수요예측 규모 6조50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인수 등에 쓸 대규모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OCI, LS일렉트릭 등도 6일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정영채 NH증권 사장 “옵티머스 다자배상 이사회 설득 유리”

〈하나·에탁원과 배상〉

수탁·사무관리사도 책임 재강조 당국은 전액 배상안 권고 예상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5일 금융위·금투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를 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다”고 전제하고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그는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부실은 판매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에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을 전액 되돌려주라는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4327억 원이다.

정 사장은 “다자배상안은 NH투자자가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에게 우선적인 배상 조

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 야만 가능하다”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부실 정황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요건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 보상을 또 다시 길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승인 없이는 전액배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투자자가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들어가고, NH투자증권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엄지 기자 eom@

빅히트 ‘음반사업 분할’ 주주 반발

美 ‘이타카 인수’ 1조 빅딜 후속 LG화학 분할처럼 추가하락 우려



하이브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이브로부터 기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레이블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해 ‘빅히트뮤직(BIGHIT MUSIC)’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빅히트 아메리카’가 음악, 정보기술(IT), 영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덧붙였다. 인수 대금은 약 1조2000억 원이다.

문제는 분할 방안이 주주들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다. 지난 해 LG화학의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과 물적분할을 시도할 때 주주들의 반발로 주가가 폭락하고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에 나서면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실제로 빅히트뮤직이 가져가는 음반·레이블 사업부는 하이브의 연간 매출 비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로 물적분할시 회사의 실적 우려가 많다. 추가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경우 지분 희석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하이브는 100% 자회사인 ‘하이브아이피’와 ‘하이브스리시스티’를 흡수합

병하기로 했다. 이들은 빅히트의 공연과 굿즈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빅히트뮤직만 별도로 기업공개(IPO)에 나서서 벗어나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음악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꿈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에 파생되는 고부가가치 창출 고려시, 기업가치는 상단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진행하는 4400억 원 규모의 오버행(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오는 6월 1일과 2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222만 여 주를 유상증자한다. 발행가격 19만7500원 기준으로 4400억 원 규모다.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가 5만 주 이상 발생하면 같은 달 4일과 7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기영 기자 pgy@

리딩방 ‘수익보장 계약’ 법적효력 없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긴 이모 씨(31)는 유시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을 계약했다. 업체에서는 수익률이 안 좋으면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고도 광고했다. 그러나 계약 후 수익률이 떨어져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태도를 바꿨다. 며칠 후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전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 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일 금감원은 “유시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시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마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금융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준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사이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동매매로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지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또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으로, 이와 같은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jh@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금융투 ‘하나 AID’ 출시

하나금융투자는 AI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AID(에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 AID’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종목 선택의 고민을 덜어 줌과 동시에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초개인화 서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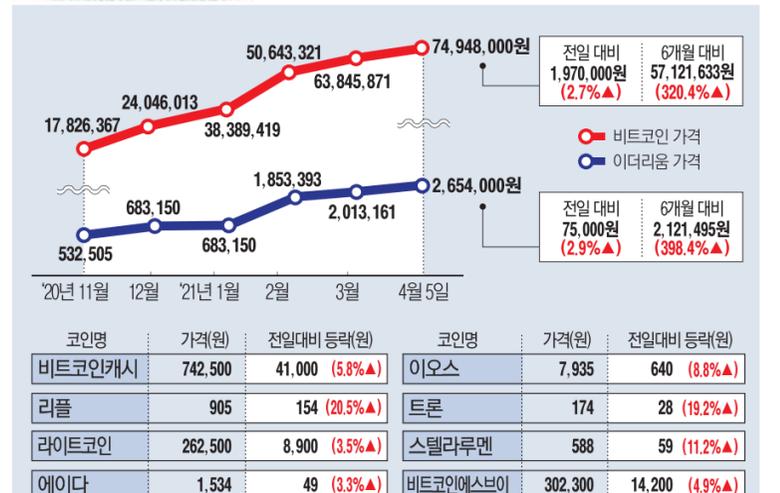
수익률, 추세 기반으로 단순 종목 추천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고객 투자 성향에 맞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 AID’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AID’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나금융투자의 투자전략 솔루션을 반영한 ‘ETF AID’ 서비스와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기초로 하는 ‘Fund AID’ 등 총 3개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최일용 하나금융투자 디지털본부장은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빗썸 지수 (2021년 4월 5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아래층은 입주권 받는데 엇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서 '잡음'

국토부 "투기 막겠다" 2월 4일 후 매입시 현금청산 원칙 주민들 "의견 묻지도 않고 공모절차" "재산권 침해" 반발 6월까지 후보지 세 차례 더 발표 예정... 논란 거세질 듯

서울 도봉구 창동 '에이스홈타운' 빌라에선 엇새 차이로 위아래집 운명이 같았다. 이 빌라에선 2월 3일 4층 집이, 9일엔 5층 집이 매매됐다. 계약일은 일주일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두 빌라 소유자가 마주할 운명은 크게 달랐다. 창동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4층 소유주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5층 소유주는 현금보상만 받고 새 집을 알아봐야 할 판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매수를 서둘렀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계약이 늦은 이들은 현금청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도심 공공주

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4 공급 대책 핵심 중 하나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사업지를 확보하는 게 국토부 목표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에서만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참여 유인책과 투기 예방책을 함께 발표했다. 기존 토지주에겐 아파트 입주권은 물론 민간사업 대비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공공 주도 개발에 따른 우려와 거부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 토지구 3분의 2 이상이 공기업 참여 개발에 동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단독·공동시행자로 참여
- 70~80%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짓되 20~30%는 공공자주주택으로 공급
- 2025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19만6000가구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
- 1차 후보지로 서울 도봉·은평·영등포 21곳 선정(2만5000가구 규모)

보상 방침

2021년 2월 4일 전 부동산 매수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보장

2021년 2월 4일 이후 부동산 매수

현금 청산



을 불식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토지주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으로 갈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개발 호재로 인식, 투기성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현금청산 원칙이 알려지자 단독주택·빌라 매매시장은 크게 술렁였다. 현금청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하는데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2월 4일 이후 산 집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면 손해를 보고 집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주들은 현금청산을 당하더라도 개발 이후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보상받고 싶을 텐데 현행 법규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매수를 이어나갔다. 이투데이가 2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토부에 신고된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실거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후보지에선 16가구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이후 거래된 주택은 아직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방침이 발표된 후부터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공인

중개사무소에선 분쟁 소지를 우려해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물건 중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더욱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 절차가 직접 주민에게 의견을 받지 않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확정되는 만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청산 논란은 앞으로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6월까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세 차례 더 발표할 예정인데 2월 4일과 시차가 커지는 만큼 현금청산 위협성에 노출되는 주택 역시 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지 않으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 교수는 "현금청산을 당하는 주택이 많아지면 사업 동의를 채우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후보지를 많이 선정한다 해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올라도 너무 올라" 지자체장도 '공시가 재산정' 목소리

조은희·원희룡 기자회견 열고 "공시가 결정권 이양" 요구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이상 올라... 실거래가 역전도 "지역 전문가 조사 참여, 1주택자 세율 조정 등 개선 필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이상 오르지 전국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2007년 평균 22.7% 오른 이후 올해 19.0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세종 등 공시가격 많이 오른 곳은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나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5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부실 공시가격 산정 중단',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특히 조 구청장은 관내 공동주택 12만 가구 중 실거래된 428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곳이 208가구(4.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완공된 서초동 한 아파

트의 거래가격은 12억6000만 원(전용 80㎡형)이지만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현실화율은 122.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서초동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문제도 지적됐다. 서초구 '반포 웨비리'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5%와 30%로 15%포인트(p)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101동 공시가격은 8억800만 원이지만 102동 공시가격은 9억67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이상)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요 불공정 공시가격 공시 사례

* 동일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임에도 종부세 부과 여부 엇갈림

아파트명	층/구수	준공연도	전용면적	공시(개년)	상승률	거래가격
반포 웨비리 101동	48가구	2002년	84.12㎡	8억8000만 원	14.95%	없음
반포 웨비리 102동	28가구	2002년	84.63㎡	9억6700만 원	29.59%	14억 원

* 평균 현실화율보다 높게 결정된 사례

아파트명	준공연도	면적	거래가격	공시(개년)	현실화율
서초동 A아파트	2020년	80.52㎡	12억6000만 원	15억3800만 원	122.1%
우면동 B아파트	2013년	51.89㎡	5억7100만 원	6억7600만 원	118.4%
잠원동 C아파트	1984년	117.07㎡	17억3300만 원	18억7100만 원	108%
방배동 D아파트	1994년	261.49㎡	10억7300만 원	13억6000만 원	126.8%

이처럼 공시가격 산정 형평성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70.6%)는 시장이 정부에 직접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서울에선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자와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연합회, 노원구 현대우성아파트 주민회 등이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을 요구 중이다.

반면 정부는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주택의 동이나 층 위치, 조망, 조향, 일조 소음 등에 따라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도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선 표준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참여 등 공시지가 조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조정 등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아파트 특공' 대폭 축소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을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 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

비수도권 이전기관 대상 제외 특공 비율 축소도 1년 앞당겨

하는 경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요건이 강화된다. 일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이번엔 30억 원으로 조정된다. 그간 투자금 산정 시 토지 매입 비만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토지 매입비에 더해 건축비까지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애초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종류와 관계 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공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대전 규제지역 맞니? 식지않는 부동산 열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상승 폭을 줄이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대전 주택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74% 올라 전월(0.8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전(1.18%) 집값도 전월(1.26%)보다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하지만 가격 상승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대전 집값은 1월 1.15%, 2월 1.26%, 3월 1.1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교통 호재나 거주 여건이 양호한 유성

지난달 매매가격 1.18% 상승 3개월 연속 전국 평균 웃돌아 유성구 1.51% 서구 1.36% ↑

구(1.51%)와 서구(1.36%)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대전은 지난해 6월 19일을 기해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시내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도 올 1분기 세종은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대전은 집값 강세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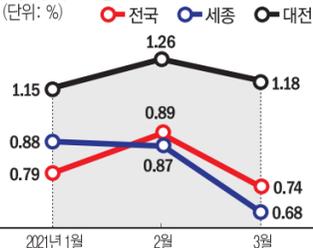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서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해 말 13억4000만 원에 팔렸으나 지난달에는 13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석달 새 5000만 원 오른 셈이다.

대전 서구 '한마루아파트' 전용 101㎡형도 지난해 7억 원 중반대에서 올해 3월 9억 원에 손바뀜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대전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금은 대전 집값이 급등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역시

전국 및 세종·대전 월별 주택 매매가 변동률



"대전은 세종과 함께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이라며 "대전은 경우(세종과의) '미 맞추기' 측면에서 지금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런 상승세가 얼마나 더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n번방 재발 막겠다던 방통위 성범죄물 모니터링조치 안해

부가통신·웹하드 사업자 제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86개사 중 약 95.3%(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0건'이라 보고했다.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만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써넣었고, 5개사의 총 신고 건수도 187건에 불과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올해 1월 말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이 총 187건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

방통위 시정요구 4021건인데 불법촬영물 신고 187건에 그쳐

털 성범죄물에 대해 시정 요구한 4021건, 자율규제 977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방통위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을 온전히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를 써넣거나 (신고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에) 아예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음성화된 (불법 촬영물) 유통은 막지도 못하면서 관리 리소스만 더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길거리 몰카 사진', '일반인 뒤태 모음' 등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지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더불어 사업체가 파악한 건수와

피해자·기관단체의 신고 건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신고'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 불일치가 발생, 디지털 성범죄물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8년 1만7486건, 2019년 2만5992건, 2020년 3만5603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다.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또한 2018년 8173건, 2019년 1만119건, 2020년 6021건으로 투명성 보고서에 기재된 건수를 웃돈다. 모두 투명성 보고서에 보고된 건수를 웃도는 수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투명성 보고서"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증거자료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겨놓도록 했다"라며 "필요하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짝 있었다"라며 "이미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나무 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마포구 서울북한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학생들과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노원구 세 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만 24세 김태현... "치밀한 계획, 3명 차례로 살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김태현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태현은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큰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범행 이전에도 A 씨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목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해를 시도한 채 발견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달 29일부터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이날 오후 5시 10분 현재 25만3496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종용 기자 deep@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촉비 7.2억 부당전가

공정위, 과징금 4.6억 부과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체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약 7억2000만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체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학신(新)론



광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 ✓ 가격경쟁력이 무의미한 뉴노멀 시대의 마케팅 전략
- ✓ 콘텐츠와 광고의 융합, 신유형 광고와 커머스 세계
- ✓ 4대 매체를 넘어서는 해체형 특성과 미디어 플러닝
- ✓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원리

디지털 시대의 광고학신론
김병희, 유승엽 외 공저 | 544쪽 | 28,000원

뉴 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생생한 광고 현장의 이야기!

디지털 시대의 광고 마케팅 기상도
김병희 지 | 14,000원

디지털 시대의 마케터를 위한 광고 마케팅 인사이트

기업을 살리는 설득의 기술
조재형 지 | 14,000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래형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광고의 미래 넥스트 10년
한국광고학회 편저 | 15,000원

광고학계에서 바라본 최신 광고 키워드와 트렌드

디지털 변화 속 광고PR 산업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저 | 17,000원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시대 속 실무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광고

(주) 학지사 | 02-330-5114 | Fax 02-324-2329 | SINCE 1992

“아이들 위생·안전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區석區석

“집과 가까운 곳에 실내놀이터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딸아이가 매일 오자고 졸라요.”

딸 권서원(6) 양과 함께 1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공공실내놀이터 ‘하티봉봉’을 찾은 손영빈(36) 씨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서원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엄마 손을 끌었다. 함께 간 곳은 디지털 스케치북 코너. 서원이는 다른 그림들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림이 스크린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신기한 어린이들은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며 신나게 놀았다.

이곳 남산모험놀이대에서 투명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불푼에 떨어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서양호 구청장의 보육에 대한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는 하티봉봉 놀이터는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중구의 첫 생활SOC 복합공간 신당누리센터 2층에 자리한 공공실내놀이터는 만 36개월 이상 미취학 유아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원의 30%만 흡페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실내놀이터 ‘하티봉봉’ 2월 오픈 이용 요금 저렴·위생 관리 철저

국공립어린이집 직영전환 추진 식단도 친환경 먹거리로 구성

“보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이곳에서 만난 서 구청장은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도심지역이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만한 장소가 부족했다. 그는 “청구역 주변에 젊은 분들이 많아 아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시설이 깨끗하고 안전요원 분들이 계셔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하티봉봉을 찾은 이미선(38) 씨도 “구청 유튜브를 통해 커피 한 잔 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더 저렴하다”며 만족했다. 하티봉봉의 이용요금은 2시간에 1000원이다.

김주영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원장경력이나 보육교사 경력 6년 이상 된 두 분이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청소는 2시간마다하고 공기살균기도 설치했다”면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이날부터 문을 열었다. 만 3개월 이상 미취학 유아와 부모가 이용하는 시설로 수유실, 유아전용화



서양호 중구청장은 1일 서울 중구 공공실내놀이터 ‘하티봉봉’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하티봉봉은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한 어린이가 ‘하티봉봉’ 디지털 스케치북 코너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 중구



장실도 갖췄다. 부모·자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 구청장은 “신당누리센터에는 1층 도서관, 2층 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나눔터, 4층 진로직업체험센터까지 보육과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도심지역으로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많은 반면 청소년과 영유아 시설이 부족하다. 서 구청장은 보육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압도적으로 투자하며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1곳이 직영전환을 완료했고 올해 2곳이 더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식단을 친환경 먹거리로 전환하고 영양성분을 대폭 강화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시설을 만들 때 영유아와 청소년 실내시설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시설에 영유아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평 기자 pepe@

2019년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1곳이 직영전환을 완료했고 올해 2곳이 더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식단을 친환경 먹거리로 전환하고 영양성분을 대폭 강화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시설을 만들 때 영유아와 청소년 실내시설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시설에 영유아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관광지서도 끊김 없이 와이파이 사용하세요”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핫플레이스 17곳 조성

5월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사람숲길, 덕수궁돌담길 등 서울 대표 관광명소와 공원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날들이 많은 봄철을 맞아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 한강, 관광명소 등 17곳을 ‘까치온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야외에서도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까치온 핫플레이스는 기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4배 빠른 속도 △동시 접속자 수 2.5배 확대 △이용 반경 확장(30m→70m) △높은 수준의 암호화(WPA 3) 등 고성능의 신형 까치온으로 교체·보강

한 곳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 전역의 까치온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맵에 ‘까치온 지도’를 공개했다. 까치온 QR코드나 URL로 모바일 접속하면 서울시 전역에 1만여 대 이상 설치된 까치온을 지역별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직영공원(하늘공원, 간데메공원, 천호공원, 올림픽공원)의 노후 장비를 교체·보강하고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400여대를 점검한다. 여의도 한강공원과 이촌한강공원도 노후 장비를 교체·보강할 계획이다. 나머지 11개 한강공원은 와이파이 제조사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까



치온이 설치된 장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_Secure’를 선택하면 된다.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장소에서 자동 접속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까치온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도심 곳곳을 스마트하고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19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서울 동작구는 19일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2.4㎡ 코워킹스페이스 4석,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 11.25㎡ 1인 사무실(오픈형) 3개소, 16.64㎡ 개별사무실 1개소다.

신청자격은 코워킹스페이스 경우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며, 입주사무실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이다.

입주가능 업종은 IT, 기술서비스업,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제조업 등으로 휴업 중이거나 국제·지방세 체납자, 환경공해 배

출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5월 관련분야 기업대표, 유관기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창업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기술개발 사항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창업보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 입주 적합성을 기준으로 종합 심의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연 36만 원 사용료 납부(입주시 일괄납부)로 1년 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1인 사무실은 연 41만 원, 개별사무실은 연 60만 원 대의 임대료로 2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서울시-복지부 국립의료원 신축·이전 합의각서 체결

태릉시장, 상인·시민 상생공간 탈바꿈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는 합의각서를 화상으로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서울시와 복지부가 지난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합의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8월부터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행위원회(서울시·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참여)를 구성, 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각서의 내용을 도출했다.

합의각서에는 2016년 서울시와 복지부가 애초 국립의료원 이전을 계획했던 서초구 원지동의 부지에 대해 양 기관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해지하는 내용과 반환금액, 반환방법이 담겼다. 미군 공병단 부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입안도서의 작성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1958년 개원해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으로 중앙감염병병원과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화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중앙외상센터 등 800개 병상에 공공보건 의료본부 기능을 더한 공공의료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2026년 개원 목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랜 논의 과정 끝에 국립의료원의 신축·이전의 결실

을 맺게 됐다”며 “이번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은 장소의 변화를 넘어 서울의 공공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기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서울 중랑구는 6월 말까지 태릉시장을 상인과 시민이 상생 및 공존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태릉시장은 중랑역과 중화역 사이에 위치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과 비가리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적치물과 좁은 보도로 주민들이 보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다.

구는 주민과 상인들이 모두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거리가게 시범사업으로 태릉시장을 공모, 그해 선정됐다.

특화거리 사업은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화동 에셀빌 상가(동일로129길 35)에서부터 새마을금고 일대(중랑역로 33)까지 총 630m의 거리가게 108개소를

4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한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구간별 △기존 거리가게(노점) 시설물 및 상가 앞 적치물, 차양막 철거 △노후 상하수관 교체·정비 △전선 및 통신 지중화사업 △가로등 및 상가 앞 차양막 설치 △보·차도 포장 공사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인도가 확장돼 주민보행로 2m에서 3m로 넓어져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가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전선·통신·케이블 지중화 사업을 통해 어지럽게 늘어선 전선이 사라져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태릉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거리가게 운영자, 점포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장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비온드골프 강남점 / 분당점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貿保와 원팀, 수출 6000억 달러 탈환”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수출신용기관 금융지원 오픈 플랫폼 운영 업무협약 자금공급·위험인수 분담키로



“올해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내년엔 수출 6000억 달러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원팀이 되겠다.”

방문규(사진 왼쪽) 수출입은행장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오른쪽)와 ‘수출신용기관(K-ECA)’ 금융지원 오픈 플랫폼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수출·해외투자자와 신산업 공동지원을 위해 협조용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K-뉴딜 글로벌화와 ESG 경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수은은 우리 기업에 대출·보증·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을, 무보는 보증·보험을 통한 대외거래 위험을 인수한다. 방 행장은 “우리 기업은 저성장 장기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재편 등 험난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 중”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수은과 무보는 앞으로 K-뉴딜 산업별 금융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발굴, 금융주선 및 금융제공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우대 등을 통해 K-뉴딜의 글로벌화 및 ESG 경영 활성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뉴딜과 ESG 분야의 수출 및 해외투자 정보를 공유해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마케팅·금융주선·금융제공 등 금융지원 전 과정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이차전지, 무선통신, 반도체, 헬스케어 등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품목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한다. 우수한 ESG 경영을 인정받은 기업과 프로젝트에는 금융우대도 제공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에 협력하고 민간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주선해 그린·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힘을 계획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K-뉴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ESG 경영 환경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오픈 플랫폼의 취지에 따라 수은과 무보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 업은행과 국제개발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조용자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아카데미상 한발 더 다가선 윤여정

‘미리 보는 오스카’ 美 배우조합 여우조연상

배우 윤여정(사진)이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조연상을 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윤여정(미나리)은 마리아 바칼로바(보랏2), 글렌 클로즈(할빌리의 노래), 헬레네 쟁겔(뉴스 오브 더 월드), 올리비아 콜먼(더 퍼더) 등 쟁쟁한 후보들을 누르고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다. SAG는 배우조합이 주최하는 만큼 수상자가 아카데미상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통한다.

미국 연예 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윤여정이 SAG 영화 부문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배우로는 최초로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TV 부문에서는 현재 산드라 오가 아시아 여성 중 유일한 수상자다. 지난해 ‘기생충’은 SAG 시상식에서 아시아 영화 최초로 ‘양상블상’을 수상했지만, 배우가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시상식은 사전 녹화돼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시상자들도 이날 TV 방송 며칠 전 결과를 알았다. 수상 소감도 사전 녹화됐다. 윤여정은 수상 소감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양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에 올랐던 다른 배우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앞서 윤여정은 2일 자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73세 아시아 여성인 내가 오스카 후보에 오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미나리”가 많은 선물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전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아 이작 정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1980년대 아칸소주에서 농장 일을 하며 정착하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에는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을 비롯해 윤여정과 한예리 등이 출연했다. 스티븐 연도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고(故) 채드 워 보스만이 ‘파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로 수상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올해 상반기 지원과제 27개 선정

2013년부터 667개에 8644억

삼성전자는 5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할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기초과학 분야 13개, 소재 분야 7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7개 등 총 27개다. 지원되는 연구비는 총 464억 원이다. 인공지능(AI) 윤리, 난임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발표한 연구과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기초과학 분야 229개, 소재 분야 215개, ICT 분야 223개 등 총 667개 연구 과제에 864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류경석 교수는 마신러닝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모델의 공통점을 세계 최초로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에 도전한다. 이를 활용하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학습 모델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



2021년 상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과제에 선정된 교수들. 왼쪽부터 서울대 류경석, 포스텍 황승준, 서강대 조규봉, 디지털트 조창희, 서울대 김건희, 충북대 김기용 교수.

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소재 분야에서 서강대학교 화학과 조규봉 교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Y염색체 DNA 서열을 완전히 해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과제는 난임 불임 등 Y염색체 관련 난임 질환 연구와 유전자 맞춤형 의료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트(DGIST) 신물질과학전공 조창희 교수는 양자통신용 광원(光源) 기술을 개발한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결정 구조를 조절해 극저온에서만 구동하는 양자통신용 광원을 상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과제다. ICT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는 AI 기술 발전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성별 등에 대한 편향, 사실관계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육성·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ICT 분야에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고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지정테마 과제 공모’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 기술 분야를 지정해 해당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송재호 스마트홈산업협회장 선임

송재호 KT AI/DX 융합사업부팀장이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장으로 선임됐다.



KT는 5일 송재호 부팀장이 지난달 31일 서면결의를 통해 12대 협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송재호 선임 협회장은 KT AI/DX 융합사업부팀장과 최고디지털혁신책임자(CDXO)를 맡고 있으며, 미디어 플랫폼 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지아이이노베이션 홍준호 경영대표

혁신신약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이 홍준호 인터파크바이오컨버전스 대표를 경영대표(COO, 수석부사장)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홍준호 대표는 프라이스위터하우스 퍼스컨설팅의 경영컨설턴트를 거쳐 인터파크그룹에서 전략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터파크그룹 헬스케어사업 진출의 교두보가 된 의약품 유통사 안연케어의 경영지원실장과 대표이사, 신약연구개발 기업 인터파크바이오컨버전스(IBCC)의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형병원, 금융부문 네트워크와 바이오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박미선 기자 only@

브릿지바이오, 이상운 부사장 영입

혁신신약연구개발 기업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신임 의학 총괄 책임자(CMO, 부사장)로 이상운 전 인터파크바이오컨버전스 연구소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내과 전문의인 이상운 부사장은 서울대



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 및 혈액종양내과 전임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한국 및 일본 지사에서 항암제 부문 의학부 디렉터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국내외 기업에서 의학과 신약 연구개발 사이클을 갖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유혜은 기자 euna@

도시정책학회장에 이명훈 교수

사단법인 도시정책학회는 제8대 회장으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도시정책학회는 도시정책의 통합적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에서 창립됐다. 향후 도시와 부동산을 통섭하는 학회로 거듭나고자 학회 명칭을 ‘한국도시·부동산학회’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ljj0403@

SK네트웍스 민팅 여의샨강공원에 식목일 맞아 묘목 4000그루 심어

SK네트웍스의 중고폰 리사이클 브랜드 민팅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여의샨강공원에 4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1만 제곱미터(m²) 부지에 버드나무, 팽나무, 참느릅나무 등 묘목을 심고 ‘민팅 숲’ 조성을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했다. 지난해 말부터 민팅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기로 한 고객 350여 명의 정성

이 더해졌다. SK네트웍스와 민팅 구성원들은 민팅 숲을 온전히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여의샨강공원 부지의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파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관 최우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 이해중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산업기반PD 진경찬
- ◆한국포스증권 △감사 신상엽

- ◆한국경제신문 △경영지원실 재경국장 직무대행 겸 재경부장 이서준
- ◆아주경제 △자본시장부장 이경호
- ◆아시아투데이 △산업부장 김진욱
- ◆일간스포츠한국 △사장 최상기 △부사장 이규은 △고문 손봉상
- ◆CEO스코어데일리 △산업2부장(부국장) 송경남
- ◆중소기업투데이 △대표이사 겸 편집인 박영호

부음

- ▲이인덕 씨 별세, 정은·성욱·원창·윤숙·소영·우정 씨 모친상, 정인홍(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씨 장모상 = 5일, 정읍장례문화원 2층 VIP 2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63-535-7777
- ▲이복순 씨 별세, 김은희·정희·양희 씨 모친상, 이남경·김광재(신한금융지주회사 본부장) 씨 장모상 = 5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예담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7일 오전 9시, 031-959-4444
- ▲정창환 씨 별세, 정기남(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은미·경윤(티엔아이정보대표) 씨 부친상, 강혜란(분당 내정중 교사)·전연숙 씨 시부상 = 5일,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202호, 발인 7일 오전 9시, 062-527-1000

- ▲이득수(전 부산 서구청 총무국장) 씨 별세, 홍성순 씨 남편상, 이정석(삼성엔지니어링 부장)·슬비 씨 부친상, 박상미 씨 시부상, 김도연 씨 장인상 = 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울산보림병원 장례식장 VIP 2호, 발인 7일 오전 8시, 010-3816-5771
- ▲강옥순 씨 별세, 엄준열·호열(자영업) 씨 모친상, 신경택(수출입은행 부행장) 씨 장모상 = 4일, 경북 예천농협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54-655-0990
- ▲한병연 씨 별세, 정용희 씨 남편상, 한은숙·은자·미선·선호·은영·두호 씨 부친상, 김진상(KIST 전북분원장)·최혁준(우리미래의원장)·이규백(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김세완(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창민(미시린산부인과 원장) 씨 장인상 = 4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6일 오전 11시 50분, 070-7816-024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송헌경경제연구소장

부동산 적폐의 뿌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이다. 생산적 투자나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세제상 금융상 혜택이 너무 커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LH 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 등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한 수사와 투기수익 환수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특혜를 축소하는 제도개혁이 없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

LH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적폐의 하나인 것은 확실히 맞다.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지를 알아야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알려는 노력도 별로 없는 듯하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적폐의 핵심은 아니다.

부동산 적폐의 뿌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이다. 생산적 투자나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세제상 금융상 혜택이 너무 커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한국은 가계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미국 일본 등의 두 배에 가깝다. 이러니 국민의 꿈이 임대사업자인 나라가 되었다. 잘나가는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들의 재산 증식 대상도 부동산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마저 회사를 키우기보다 적당한 때 사업을 정리해 역세권에 빌딩을 사 임대사업자가 되려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역대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는 비과세이고, 월세도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고 경비 인정 금액이 커 세 부담이 별로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엄청난 혜택이 있다.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급여라는 명목으로 임대소득을 줄이고 가족에게 소득을 증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식 등 금융자산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자산은 대부분 거래 관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고 위험하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은 비과세이다. 시가 9억 원 초과분과 2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나 공제 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도 미국 등에 비해 실질 세 부담이 낮다.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하기만 할 뿐 재산세 하나를 제대로 걷는 것보다 못하다. 이마저도 1주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다. 상속과 증여도 공시지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공제 혜택이 크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노력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 특혜를 줄이는 것이다. LH 직원이나 공

원, 정치인 등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한 수사와 투기수익 환수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특혜를 축소하는 제도개혁이 없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 이와 함께 복잡다기한 부동산 세제와 청약 제도 등은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에서 사업성과 상환의지 평가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할 일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은 하는 것 같지가 않다.

한국의 부동산은 성공한 정치인, 관료와 교수, 의사 등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공통 이익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다. 정책 당국이 부동산 특혜를 축소하지 않는 큰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높여 빠져 허우적거리다 5년 임기를 끝낼 듯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정국으로 바뀔 것이다. 새 정부에서라도 한국의 부동산 적폐, 즉 부동산에 주어진 과도한 특혜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 부동산에 목맨 나라로 남을 것이다.

정책발언대



류정용 강원대 제지공학과 교수

사람들에게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 중 뭐가 더 싫어?' 라고 묻는다면, 일부 환경 관계자들은 폐지가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이 싫다고 할 것이고, 일부 수출 관계자들은 폐지 부족으로 수출용 종이 상자가 부족해지는 박스 대란이 싫다고 할 것이다.

물론 풍요롭고 안락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 모두를 피해야 하는데, 요즘 그러기 어렵다고 한다. 재활용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들은 폐지 수입신고제 등의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박스 대란을 염려하지만, 환경부는 폐지 수입량이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방 소재 제지업체들은 골판지를 생산하기 위한 폐지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 위기로 내려갔던 폐지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은 코

나 이전보다 낮다고 한다.

제지업체들은 폐지를 거러할 때 발생하는 수익으로 폐지 외의 비닐, 플라스틱 등 값어치가 낮은 품목의 수거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폐지 수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지거래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압축폐지 함수율 실시간 측정설비 설치 요청을 지난해부터 해 왔지만, 제지업체가 미온적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결국 쓰레기 대란을 피하면서 박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국산 폐지를 원료로 재생지를 생산하는 재활용 제지업체가 생산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주원료의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폐지의 수거·공급 체계가 원활해야 한다.

이에 관해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선적인 과제를 '폐지 가격 안정'과 '쓰레기 대란 예방'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폐지 가격이 안정돼야 장기적으로는 제지업계도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없이

준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재활용 제지업체는 폐지를 구매할 때 수분과 비닐,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율이 측정된 폐지 무게의 10~20%를 감량해 왔다. 이러한 감량은 검수자가 육안으로 훑어보고 판정하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지업계는 폐지의 수급 상황에 따라 원료가 부족한 때에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감량을 줄이고, 원료가 남을 때에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감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폐지의 가격을 교란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제지 현장에서 킬로그램 당 130원 하는 폐지가격이 20원 올랐다는 것은 감량이 10% 이상 줄어들고도 이에 더해 가격이 또 오른 것이므로 오십 원 이상 인상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사정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지업계가 조장한 결과, 실제로 원료가 부족해지더라도 외부에서 알아보기가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수도권과 달리 항상 폐지가 부족한 지방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미 제안된 압축폐지의 실시간 함수율 측정설비를 활용한 폐지 검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민·관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내외 폐지 수급동향, 폐지 관련 정책과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환경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무쪼록 이 협의체를 통하여 재활용 제지업계와 폐지업계 간 해묵은 불신과 반목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국내 폐지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업계와 정부가 서로 협조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을 충분히 피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쓰레기 대란·박스 대란의 해법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웰 토마스 명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더 하라."

미국의 작가, 방송인. 중군기자로 중동 전선을 시찰한 그는 '아리비아의 로렌스' 영화의 실제 인물인 T.E.로렌스 대위를 추재했다. 미국에서 기록영화와 함께 강연회를 열어 대중공을 거둔 그는 영국에 초대돼 같은 행사를 4년이나 개최해 '로렌스 전설'을 만들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92~1981.

☆ 고사성어 / 노마십가(駑馬十駕)
걸음이 느린 노마도 준마가 하루 달리는 길을 열흘이면 갈 수 있다는 뜻. 재주 없는 사람도 노력하면 재주 있는 사람을 따를 수 있다는 말. "잘 달리는 말이라도 한 번 뛰어 열 걸음을 갈 수는 없지만, 둔한 말이라도 열흘을 달리면 목표한 바에 이를 수 있으니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駑馬十駕 則功在不舍]." 출전 순자집해(荀子集解) 권학편(勸學篇).

☆ 시사상식 /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 영국의 경제학자 앳킨슨이 제안했다. 사회 후생 수준을 가져다줄 수 있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한 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과 비교해, 그 비율을 따지는 지수를 개발했다. 평가자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여길수록 이 지수는 커진다.

☆ 속담 / 굽벥기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 떨어진다

남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도 그 자신에겐 요긴한 뜻이 있음을 이르는 말.

☆ 유머 / 두 다리의 용도
대학생 아들이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만 타려 하자 엄마가 나무랐다. "넌 조물주가 무엇 때문에 두 다리를 주었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주셨고 또 다른 한쪽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라고 주신 거죠. 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나은 국제경제부/better68@

아시아인은 마스크도 쓸 수 없는 나라

사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다. 10년 전 교환학생으로 직접 겪었던 미국은 사회적으로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막연한 성적 환상이 있었고, '그린카드(영주권)'를 위해 백인 남성과의 결혼을 갈망할 것이라는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편견이 강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은 변

함없어 보인다. 지난달 16일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인 8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정서를 여실히 보여줬다.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증오범죄가 아닌 '성중독' 가능성부터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오범죄로 분류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시대가 왔지만, 미국의 이면에는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에 사는 친척이나 사돈 하나쯤 있고, 높은 학구열 덕에 미국 유학생도 많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단순히 타국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범죄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팩스 (02)784-1003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사진영상팀 (02)799-6745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배달 (02)799-2684
				월 15,000원 1부 800원

또 아이들 밥그릇을 뺏자고?

우리 민족은 유독 밥 먹는 것에 민감하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같은 거창한 이론을 갖다 댈 필요도 없다. 한때는 “밥 먹었어?”,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침인사였고, 지금도 “언제 밥 같이 먹자”가 인사로 쓰인다. 각종 TV와 유튜브에서도 먹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심지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까지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김 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사실상 무상급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부터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무상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314억 원에 달한다며,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는 10여 년 전인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사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장 각종 맘카페와 개인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가 신문에 냈던 알몸으로 벗겨진 아이를 내세운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주거형태·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월 건강보험료 등을 적어

데스크칼럼

김 남 현
금융전문기자



내야 했던 무상급식 이전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 등이 나돌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 밥그릇을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교하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정책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이코노믹 에듀케이션 리뷰(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74호에서 한국의 초·중·고 무상급식을 분석해 발표한 '학교 무상급식이 학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문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료 점심을 제공했던 2010년 이전과 달리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 간 신체적 싸움(폭력)의 수가 약 35%가량 줄었다. 무상급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교 내 폭력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무상급식 도입 당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부문을 수지로 확인시켜 준 결과다.

경제적 효과도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도입 초창기 세금납비, 포플리즘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영양

사·조리사 등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친환경 유통라인 구축에 따른 농촌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방법에 따라 수치는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취업 유발효과는 연 1만98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중 25.7%는 서울 이외 타 지역에 미쳤다.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생활비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소득은 늘었다. 그 영향으로 문화비 지출과 자녀 용돈 역시 증가했다. 학부모 76%가 무상급식이 가정경제에 도움된다고 답한 조사결과도 있다.

여기에 기자 개인의 경험 하나를 더 덧붙이고자 한다. 기자는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둔 세 아이의 아버지이며, 서울에 산다. 지난해 셋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세 아이 모두 초·중학교 동문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를 안 가신났던 셋째가 지난해 아쉬워했던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누나들로부터 중학교 급식이 맛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던 셋째로서는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꺾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이들의 밥그릇이다. 아이들을 굶기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못사는 아이로 낙인찍어서야 되겠다. 누구에게든 손주고 자녀이며, 동생들이다. 밥그릇을 뺏는 일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kimnh21c@

사설

LG 스마트폰 철수, 살벌한 기업전쟁의 현실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의 철수를 공식 결정했다. LG는 5일 이사회를 열어 7월 말로 모바일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의 영업을 종료기로 했다. 사후서비스는 지속하고 협력사 손실 보상도 협의기로 했다. 3700여 명의 이 사업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부나 자동차 부품 및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합작법인 등에 전환배치한다.

LG가 결국 모바일사업을 접기로 한 것은 치열한 기업전쟁의 현실을 드러낸다. LG는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운 기업이다. 가전 경쟁력은 현재도 세계 최고다. 1995년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해 한 때 글로벌 점유율 10%로 피쳐폰 세계 3위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2007년 애플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에의 신속한 대응을 놓치면서 추락했다. LG의 휴대폰 사업은 2015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였고, 누적적자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 LG로서는 불가피한 결단이다. 경쟁력 잃은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자금과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살아남는다. 시장도 사업체질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나 사업도 영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한순간의 기회상실이나 의사결정 오류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패퇴하

는 것이 글로벌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과거 세계 휴대폰시장을 지배했지만 잊힌 존재가 된 노키아나 모토로라, 또 가전의 소니 등이 그랬다.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동안 30대 그룹 가운데 지금 살아남은 곳은 고작 10여 개다.

글로벌 시장은 살벌하고, 갈수록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위기가 닥쳐온다. '반도체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격변이 예고된다. 미국이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면서 패권탈환에 나섰고, 중국은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반도체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같은 움직임이다. 삼성 반도체가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한국 대표기업이자, 가전의 세계 최강인 LG전자가 직면한 현실과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선택이 스마트폰 포기다. 순간에 기업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활(死活)을 건 싸움을 이기는 것 말고 살 길이 없다. 그런데도 정권의 기업에 대한 현실 인식은 여전히 '대기업은 적폐이자 악(惡)의 근원'이다. 이 정부 들어 쏟아낸 '기업발목잡기법'과 규제는 손잡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경제계의 수도 없는 호소에도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배구조를 흔들며,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쪽으로만 치닫고 있다. 제발 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반(反)기업 정책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노트북을 열며

송 영 록
산업부 차장



LG에 신종균·고동진 사장이 있었다면

안승권 전 사장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며 사업 포기설까지 나돌았던 휴대폰 사업의 구세주는 '초콜릿폰'이었다. 당시 안 사장은 MC연구소장을 맡아 초콜릿폰 개발을 총괄했다. 뒤이어 내놓은 '샤인폰'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 공로로 MC사업본부장을 맡은 안 사장은 휴대폰을 회사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사업으로 성장시켰다.

문제는 애플 아이폰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기술자가 아닌 전략가였던 남용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 오히려 피쳐폰을 강화하는 등 기술 변화 대응에 실패했다. 당시 MC사업본부장은 안승권 사장이었지만, 최고 결정권자인 남용 부회장의 오판이 LG 스마트폰 사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 사태로 남용 부회장은 CEO에서 물러난다.

절치부심한 LG전자는 다시 기술자 출신 박종석 부사장을 MC사업본부장에 앉혔다. 박 부사장은 옵티머스G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LG 휴대폰의 부활을 알렸다. 후속작 G2와 G3까지는 소비

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박 부사장이 물러난 이후가 또 문제였다.

전략가였던 조준호 사장이 MC사업본부장에 임명됐는데, 그는 임기 중에 사실상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며 불명예 퇴진했다. 기본기에 집중하며, G 시리즈를 발전시켜야 했지만, 과거 피쳐폰 시절처럼 독특한 시도에만 공을 들인 탓이다.

결국, MC사업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누적 손실액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스마트폰 단일 사업 구조였다면, 팬택처럼 오래전에 회사는 없어졌을 것이다. 이번 스마트폰 사업 철수 결정이 어쩌면 당연한 이유다.

LG전자에 삼성 갤럭시 신화를 만든 신종균, 고동진 사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LG 스마트폰이 과거 싸이언의 영광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짧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스마트폰 사업이란 앞던 이도 과감히 뺐다. 과거는 과거에 묻으면 된다. 적자 사업을 과감히 버린 LG전자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syr@

특허, 특!

유럽 지식재산제도와 브렉시트

FIF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의 정확한 의미는 '축구협회의 국제연맹'으로, 회원인 축구협회는 반드시 국가 단위에서 결성되지 않아도 된다. 영국 내 4개 지역의 축구협회는 모두 별개로 가입되어 있고, 자치령인 데다 그마저도 영국령과 미국령으로 나뉘는 버진아일랜드의 두 협회도 각각 FIFA 회원으로 활동한다. FIFA 가입 축구협회는 대륙별 축구연맹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지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은 중동과의 갈등으로 유럽축구연맹에 소속되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축구협회는 오세아니아축구연맹보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유리한 아시아축구연맹으로 옮겼다.

이처럼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에 가입할 때 국가의 울타리인 국경은 모호해지기도 하는데, FIFA에서 예외를 만들었던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면서 지식재산 국제기구나 조약에서도 복잡한 사례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은 역내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일한다는 목표 아래, 상표와 디자인부터 통합에 들어가 유럽연합상표와 공동체디자인으로 묶어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

국 사이에서 등록과 취소 절차가 통일되었다는 뜻이므로, 회원국에서 벗어난 영국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 유럽연합상표와 디자인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보호하려면 영국 등록부가 추가로 필요하고, 새로 출원하는 상표와 디자인은 유럽연합과 별도로 영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는 유럽통일특허제도를 만들던 도중에 브렉시트를 만나는 바람에 협의가 중단되어, 기존의 유럽특허조약(EPC)이 그대로 유지된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는 탈퇴했지만 유럽특허조약에는 잔류하기로 해서 유럽의 특허는 브렉시트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 유럽특허조약 가입국의 특허심사는 공통절차로 진행되고, 무효심판은 각 나라별로 제각각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무효인 특허가 네덜란드에서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이 제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내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계가 유럽연합상표와 공동체 디자인의 편리함을 이미 확인했으니 말이다. 문환구 두리암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초대합니다
국민에게
힘이되는

— 입 장 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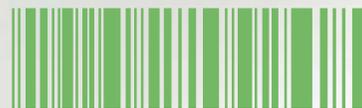
삼성전자
국민가전
페스타

...

함께 즐기는 대국민 응원세일

01 APRIL - 30 JUNE

- 국민 대표 가전 구매 혜택
- 에너지소비효율 우수 가전 혜택
- 프리미엄 제품 보상 판매



2021.04.01 ~ 2021.06.30

www.samsung.com 과 가까운 삼성전자 판매 매장에서

* 행사 모델에 한함